Colossians 1
Tape # C2609
By Chuck Smith

Shall we turn in our Bibles tonight to Colossians, chapter one. The city of Colosse, was in the area known as Pergia, a part of Asia Minor. A couple of other churches are greeted by Paul in this epistle, and the epistle was told to be read also to those churches and that was the Laodicean church. And also the one in Hierapolis. Paul had never personally been to these churches. They had never seen his face. However, the churches were probably started as a bi-product of Paul's ministry in Ephesus, for as Paul was in Ephesus for two years and Ephesus is not that far from Laodicea and from Colosse. There were those who came from these areas, heard Paul, and the word of God was spreading through that area as the result of Paul's ministry in Ephesus.

다같이 골로새서 1 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골로새라는 도시는 소아시아 지역의 페르기아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서신 속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외에도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폴리스 교회와 같은 또 다른 교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서신을 그 모든 교회들이 회람하도록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은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였을 때 생겨난 교회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2 년여 동안 사역을 하였고, 에베소는 라오디게아나 골로새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라오디게아와 골로새로부터 온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바울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결과로 그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 것 같습니다.

So, they probably went back to these areas and just began fellowships which grew into churches. Epaphras was the minister of the church in Colosse, and Epaphras had come to Paul while he was in Rome in prison and had related unto Paul some of the dangerous heresies that had begun to be spread there in Colosse. And so Paul is writing the epistle to correct these heresies that were becoming popularized in that community. One of the heresies was that of Gnosticism, which denies the deity of Jesus Christ. Another heresy was that of Judaism, which of course was the mixture of the works along with faith for salvation. The letter was written at the same time that he wrote his letter to the Ephesians and was carried by the same messenger Tychicus, who carried the Ephesian epistle, carried also this epistle to the Colossians, written about 64 A.D. during Paul's first imprisonment in Rome.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후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거기서 작은 모임을 가지게 된 후 그 모임이 커져서 결국 교회가 되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사람은 에바브라였습니다. 그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갖혀 있었을 때 그를 찾아와서 골로새 지역에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던 위험한

이단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서신을 통하여 교회공동체 속으로 파고들어오기 시작한 이 이단문제를 바로 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이단들 중 하나는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입니다. 또 다른 이단은 유대교적 이단이었습니다. 유대교적 이단은 구원을 얻는데 믿음 외에 행위가 결합되어야 한다고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같이 쓴 서신입니다. 에베소서를 에베소 교회에 전달한 두기고가 또한 이 골로새서를 골로새 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때가 주후 64 년경이었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1 차 투옥되었을 때입니다.

> *Paul, an apostle of Jesus Christ by the will of God, and Timotheus, our brother (1: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And so, the introduction in greeting is so typically *Pauline*, that in studying these epistles of Paul to the churches, we have covered this same introduction in various forms. Again, because he is going to be addressing things of doctrinal error, he again takes his title as the apostle of Jesus Christ. And he's speaking with his apostolic authority, "an apostle of Jesus Christ by the will of God." Again, not all are apostles, not all are prophets, not all are evangelists, not all are pastors, not all are teachers. God calls men and women to every vocation of life. And whatever God has called you to be, the important thing is that you be what you are by the will of God.

그리하여 인사말로 시작하는 서문은 전형적인 바울 스타일입니다. 서신서를 연구하다 보면 이와 같은 동일한 서문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그가 교리적인 오류를 바로 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사람이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요,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요, 모든 사람이 복음전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요, 모든 사람이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 다른 소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떤 소명으로 부르셨던 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Now, it is interesting as Paul is praying for the Colossians here, his first request for them is that they might be filled with the knowledge of the will of God. How many of you think that's an important prayer? I pray that for myself all the time; "God help me to know your will in each situation." But I believe that it is important that each day we commit our lives unto God and unto the Lordship of Jesus Christ. And if we will do that, I believe that our lives then become the progressive revelation of God's will. I think

that if in the morning I say, “Lord, my life is Yours. I want to be Your servant today. I want You to lead me by Your Spirit. I want You to over rule any wrong decisions that I might be making. Lord, just take control of my life.” And I yield myself thus to the Lord, I believe that as the day unfolds, it becomes a progressive revelation of that which God has purposed and planned for me.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첫째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해 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저 자신을 위하여 이런 기도를 항상 드립니다. “하나님 매 순간 마다 당신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매일 매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점진적으로 계시될 것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릇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당신께서 저를 지배하시고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나의 삶을 올려드린다면 그 날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의도하셨던 것들이 점차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My problem: I’d like God to just paint me a picture of the whole day and get me the schedule and say, “All right now, at 9:00 o’clock you’ll do this and at 10:30 I want you to go over there, and 11:00 o’clock if you’ll come back here and talk to this fellow and…” I’d like the whole daily schedule in the morning so I can just look at it and say, “All right fine. Let’s go for it, Lord.” But it is interesting how God never gives you the second step until you’ve taken the first step.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시고 스케쥴을 한꺼번에 잡아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아홉시에는 이걸 하고, 열시 반에는 저기로 가서 저걸하고, 11 시에는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말을 하고.. 뭐 이렇게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침에 그 날의 전체 스케쥴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고 ‘좋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죠’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첫 발걸음을 내디디기 전까지는 다음 발걸음을 어디로 내 디딜 것인지를 절대로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God said to Phillip, “Go down to Gaza.” And so he did. Told him it was a desert place, but he knew that. When he got to Gaza and there were a lot of things that actually mitigated against his going to Gaza, because it was such a desert place, and he was in a great movement of the Spirit in Samaria. Hundreds of people were coming to Jesus Christ. Things were really cooking through his ministry there. Miracles were being

wrought, and God takes him out of this successful evangelistic campaign down to the desert.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일어나 가사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은 그대로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이 사막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빌립은 이미 가사가 어떤 곳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가사로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순종이었습니다. 가사는 뜨거운 사막지역이었습니다. 더욱이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대단한 성령 부흥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기적들이 일어났으며 수 백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왔습니다. 사마리아에서의 빌립의 사역은 정말 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하나님께서 성공적인 전도사역의 와중에서 빌립을 끄집어 내어 사막으로 내려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Now he could have stayed in Samaria and said, "Now, Lord, come on. Can't You see the work that is being done? And why do You want me to go to Gaza?" And he could have stayed there and argued with the Lord, and he could have rationalized very easily himself out of going to Gaza. He could have said, "That couldn't have been God that said that to me. That's such a desert place. And surely God wants me to stay where things are really hopping, and it couldn't have been the Lord." And had he never gone to Gaza, he would have never gotten the next instruction. You see, our problem is that we don't always follow the first order, and then we never get the second order. The second order often doesn't come until the first order is obeyed. Go to Gaza. When he came to Gaza, he saw a chariot heading towards Ethiopia, and the Lord said, "Join yourself to the chariot," second order. And progressively, God's will was made known to him. So it happens in our lives. 빌립은 이렇게 말하며 사마리아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보지 못하십니까? 왜 하필 지금 저 보고 가사로 가라고 그러십니까?" 그는 하나님과 말씨름을 하면서 그곳에 주저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가사로 내려가지 않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 시키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닐 수도 있어. 거기는 사막이라고 사막.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일이 잘 풀리고 있는 곳에 남아있으라고 말씀하실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리가 없어." 만일 빌립이 가사로 내려가지 않았더라면, 그는 결코 다음 단계의 지시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항상 하나님의 첫번째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번째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두번째 지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시는 첫번째 지시에 순종하기 전까지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가사로 가라." 빌립이 가사로 갔을 때 그는 에디오피아로 가는 병거를 보았습니다. 주께서는 그에게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지시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빌립에게 점진적으로 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So whatever I am, I am by the will of God. Paul, an apostle of Jesus of Christ by the will of God. Timothy: Paul calls him his beloved son in the Lord, a companion of Paul. Probably no one understood and was so in harmony with Paul as was Timothy. To the Philippians, he said, "I'm sending Timothy to learn of your safety, because there is no one who is as like-minded in the things of the Gospel as I am, as is Timothy." He had really caught the heart of Paul in his commitment unto the things of the Lord. Somehow,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find those who have the same vision, the same commitment to the things of the Lord. 다시 1 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바울은 디모데를 주님 안에서 아들된 자요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디모데만큼 바울을 잘 이해하며 합력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앎으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주님의 일을 위하여 진심으로 헌신하는 디모데가 바울의 마음에 참으로 합하였던 것입니다. 같은 비젼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동일하게 헌신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He's writing to the saints, those who'd been set apart, and the faithful brethren in Christ, which were at Colosse. Now, remember, heresy is creeping up in the church. He's going to be writing to correct some of these heretical ideas. But he writes to them as, first of all, saints, secondly, as faithful brethren, and thirdly, in Christ. 2 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단이란 것은 교회 속에서 기어나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단적인 생각들을 바로 잡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무엇보다도 먼저 성도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신실한 형제라고 부르며 세 번째는 주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 *The typical,Grace be unto you, and peace, from God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We give thanks to God and the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praying always for you (1:2–3),* 이어지는 인사는 전형적인 바울 스타일의 인사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찌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

And Paul, it seems, mentions in almost each of his epistles his prayers for those people, “God is my witness,” he writes to the Romans, and “I bow my knee before the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making mention of you in my prayers.” He offers a couple of prayers in the epistle to the Ephesians, and he mentions his prayers in so many of the epistles. Paul was a man of prayer, as is true of any man who is used mightily of God; they are men of prayer. 바울은 거의 모든 서신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로마서에서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노라(롬 1:9)“고 하였습니다. 또한 에베소서와 그 밖의 여러 서신들 속에서도 형제들을 향한 기도를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대개 그러한 것처럼 바울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 *Since we heard of your faith in Christ Jesus, and of the love which you have to all the saints, for the hope which is laid up for you in heaven (1:4–5),*
>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1:4-5)*

Again, these three are so often coupled together: the faith, the hope, the love. Remember in Corinthians thirteen, “Now abide these three: faith, hope, love" (Corinthians 13:13). Characteristics that mark the believer: the faith of the believer, the love of the believer, and the hope that is in the believer. These are the characteristics that are the continuing mark of the child of God. And so, “The faith in Jesus Christ, the love for the saints, and the hope which is laid up for you in heaven whereof you heard before in the word of the truth of the gospel.” 다시 한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 장에서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거하라(고전 13:13)고 말하였습니다. 신자의 특징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One of Paul’s prayers for the Ephesian church is that they might know what is the hope of their calling. If you only knew what awaits you, if you only knew this hope laid up for you in heaven. Peter said, “Thank God we’ve been born again to a living hope by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 to an inheritance that is incorruptible, undefiled, fades not away, reserved in heaven for you who are kept by the power of God" (1 Peter 1:3,4,5). This hope of that glorious kingdom, the kingdom of Jesus Christ.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 중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벧전 1 장 3-5 절) 우리의 소망은 영광스러운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And so, the hope laid up for you in heaven which is come unto you, the word of the truth of the gospel which is come unto you, as it is in all the world. 다음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이 복음이 이미 온 천하에 이른 것처럼 너희에게 이르매" (5-6 절) 라고 하였습니다.

Now, it is interesting here that Paul does declare that the gospel at this time had gone into all of the world. That's amazing! Without jet airliners, without satellite TV, without radio, the early church was able to take the gospel into all of the world. They fulfilled the commission of Jesus Christ,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to every creature" (Mark 16:15). Paul here declares that the task was accomplished, and this is just some thirty-two years after the death of Christ. And this is without building a single church, or building a single seminary, or without Campus Crusade for Christ, without programs. How was it accomplished? It was accomplished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nd by the fact that they did depend upon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within the church. 복음이 이미 온 천하에 이른 것처럼 이라는 사도 바울의 말이 참 흥미롭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제트 비행기도 없었고, 위성방송도 라디오도 없었지만 초대교회는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사명을 완수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임무가 완수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지 32 년이 지났을 뿐입니다. 교회건물도 하나 없었고, 신학교도 하나 없었고, CCC 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였더니 이루어진 것입니다.

Now, I thoroughly disagree with those that say, "Well, the Holy Spirit was given in the beginning to give them a start, but once they got organized, they no longer needed the Holy Spirit's power. And so, God withdrew that power to let us go now on our own steam, sort of speak, with our own genius and with our seminaries and all." With all that we have today, we are failing to get the gospel into all the world. A smaller percentage of people in the world know of Jesus Christ today than did know of Him thirty years ago. In fact, with the rate of the population growth explosion in the world and with the

rate by which the gospel is being preached in the world…the declining rate, if things continue status quo, by the year 2021, only 5 percent of the people in the world will have heard of Jesus Christ. With all of our seminaries, and radios, and TV's, and programs, and wisdom, and devices, and schemes, and methods, it's a real indictment against the church. It does say much for the Holy Spirit and for His ability and power. I believe that the only hope for the church to reach this generation with the gospel, is again, the empowering of the Holy Spirit and being led of the Holy Spirit. I don't think it can be done by man's devices; I don't think that we can devise a program to do it. And I don't think God intends us to. I believe that it is only through prayer and through being led by the Spirit that the church can be an effective witness in the world. Jesus said, "Ye sha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you, and ye shall be witnesses unto me, both in Jerusalem and in Judea and in Samaria and unto the uttermost parts of the earth" (Acts 1:8). But the only power that we have whereby to be that kind of a witness is the power of the Spirit, and if we deny that, and reject that, then surely, we are going to fail in the mission of getting the gospel into the world. "글쎄요.. 성령께서는 초대교회 때에만 시작을 위하여 역사하신 것이고, 일단 교회가 조직화되고 난 후에는 우리는 더 이상 성령의 능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힘을 거두어가셨고, 이제는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의 신학교를 통하여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을 이루어 낼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30 년 전의 크리스챤 숫자보다 적습니다. 그동안 세계에는 폭발적인 인구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는 속도는 인구증가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이대로 계속 가면 2021 년 경에는 지구상의 오직 5%의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는 이들이 됩니다. 우리는 수 많은 신학교들과 라디오 방송국과 TV 들과 수 많은 프로그램들과 지혜와 도구들과 계획과 방법들을 가지고서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만이 오늘날 이 세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실 소망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합니다. 인간의 계획과 고안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오늘날 세상에 효과적인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 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고 하셨습니다. 증인이 될 수 있게 해 주는 권능은 오직 성령의 권능 뿐 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고 거절한다면 우리는 분명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Again, in this first chapter, Paul makes mention of the fact of the gospel being preached into all of the world. Verse twenty-three, 바울은 1 장에서 다시 한번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말합니다. 23 절을 보십시다.

> If you continue in the faith grounded and settled, and be not moved away from the hope of the gospel, which ye have heard, and which was preached to every creature which is under heaven; whereof I Paul am made a minister (1:23);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군이 되었노라 (1:23)

There are those who say, "Well, Jesus can't come until the gospel's been preached into all the world." Well, the gospel has been preached in all the world. And it brings forth fruit. The glorious thing about the gospel is it does bring forth fruit. And look where in the world the gospel has been received. Look at the fruit that it has brought forth in the lives of the people and in the nations themselves, those nations that have received the gospel of Jesus Christ, look at the fruit that it's brought forth. Those nations, where other religions are more or less the national religions and reign, look at the fruit of that. Now, I'm talking about the true gospel of Jesus Christ. Because, unfortunately, the church as an institution does not always proclaim the true gospel of Jesus Christ. But the church as an institution, quite often, is just another religious experience and is as another religion in the world, because it doesn't always proclaim the real gospel of Jesus Christ. And so, there are nations that have come under the influence of the church and they're no better off for it. But those that have come under the influence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you can see the fruit; it has brought forth fruit in the lives of the people. "글쎄요.. 예수께서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전에는 오실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미 온 세상에 전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열매를 맺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복음의 영광스러운 측면은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된 지역을 한번 보십시요. 복음이 그 지역 사람들과 민족들의 삶 속에 맺어낸 열매를 보십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보십시요. 제가 말하는 복음이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때로 불행하게도 교회가 제도화되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다른 종교들처럼 그저 하나의 종교집단화하는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합니다. 그 경우에는 비록 한 나라가 교회의 영향권 내에 있다 할지라도 별반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권 내에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는 복음의 열매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삶 속에 열매를 맺습니다.

And one of the fruits of the gospel is that of the love of freedom, the love of liberty. Our nation founded really from people who were looking for that freedom of worshiping God without a state church, without the state ordering the church and supporting the church and taking the taxes from the people for the church. The darkness of Europe today is the result of state church systems. And in those European nations where you have the state church, where the church is supported by the taxes of the people, you find that the church is decadent; it's dead. There were men who had a love for freedom because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and they established this nation. And that's why freedom and liberty was such an important thing to them, but as other forces have moved in as the church's witness has waned, we see there is also an eroding of our freedoms, an eroding of the liberties. And people are allowing it, because the strength of the gospel is not what it once was in this land. And so, we are not as free as were our forefathers. 복음의 열매 중 하나는 자유에 대한 사랑입니다. 미국은 국교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사람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그들은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거나 아니면 국교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교회를 후원하는 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유럽의 영적인 어두움은 국교체제의 귀결입니다. 국교체제를 가지고 있는 유럽국가에서는 교회들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모두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자유를 사랑하였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 나라 미국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유가 그토록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에서도 교회의 복음증거가 약해지면서 다른 세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자유가 부식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때 이 땅에 있었던 복음의 힘이 예전같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우리 건국선조들처럼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There are a lot of things that you could carry on with that, but time doesn't permit. It brings forth fruit. The real fruit of the gospel is love: an appreciation of fellow man, a love for our brothers, a love that manifests itself in deeds of charity and goodness to one another, reaching out. 복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만 시간이 허락지 않습니다. 복음은 열매를 맺습니다. 복음의 진정한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형제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약한 이들을 찾아가서 서로 서로 자비와 선행을 베품으로서 나타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And bringeth forth fruit, as it doth also in you, since the day you heard of it, and knew the grace of God in truth (1:6):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1:6)

And Paul's emphasis here, "You heard and knew the grace of God in truth." How important that we know the grace of God in truth. 사도 바울의 강조점은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에 있습니다.

As you also learned from Epaphras our dear fellow servant, who is for you a faithful minister of Christ; who also declared unto us your love in the Spirit. For this cause we also, since the day we heard it, do not cease to pray for you, and to desire that you might be filled with the knowledge of his will in all wisdom and spiritual understanding(1:7-9)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군이요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1:7-9);

So, the first petition that Paul is praying for the church is that they be filled with the knowledge of the will of God in all wisdom and spiritual understanding. Secondly, 사도 바울의 첫번째 간구는 그들이 모든 지혜와 총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찬 이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1:10)"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Paul wrote to the Ephesians and told them all that God was and had done for them, and then he said, "Now, walk worthy of the calling, wherewith you were called." You're a child of God. Walk like it, live like it; walk worthy of that which God has called you to be, His child. Walk in a manner that is befitting that of a child of God. You might walk worthy of the Lord unto all pleasing, being fruitful in every good work and increasing in the knowledge of God. How important that we be increasing in our knowledge of God. And that's what these Sunday night services are dedicated to. For you can only really know God in truth as He is revealed Himself to us through His word. Your only real source of the knowledge of God is here in the Bible. And so, to know God we must know the word of God, whereby He has revealed Himself to man. Increasing in the knowledge of God. And we, week by week, should be increasing in our knowledge of God. That you might be,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 한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라. 자녀답게 살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땅한 태도로 살라. “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여 주실 때에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통로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인간들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되어야 합니다. 매주 매주 말씀을 배우는 것을 통하여 자라나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를 수 있게” (1:11) 됩니다.

Now, so often, our patience and long-suffering is not with joyfulness. It’s with sort of complaining and whining and griping, “I’ve been waiting so long!” And we just sort of wail when God makes us wait. But that we might wait with joyfulness. 때로 우리는 견디고 참는 것을 기쁨으로 하지 못합니다. 불평하고 짜증내고 투덜댑니다. “하나님 너무 오래 걸려요!” 하나님이 우리로 기다리게 하실 때 우리는 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되면)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Paul again wrote of the saints in light to the Ephesians here. And there is a great parallel, of course, both the epistles were written at the same time, and so a lot of parallel thoughts in the two. But we give thanks to God, who has made us worthy to be partakers of this inheritance. Again, Paul prayed for the Ephesians that they might know what is His inheritance. Something different, but he did refer also as one of the blessings of God, that inheritance that is ours of the saints in light. 12 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다시 한번 에베소서에서 언급하였던 성도의 축복에 대하여 말합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모두 동시에 쓰여진 서신이기 때문에 두 서신 속에서 많은 부분 병행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들이 하나께로부터 받는 기업이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고 기도를 드렸지만, 이곳 골로새서에서는 그 기업이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기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Who has delivered us from the power of darkness, and has translated us into the kingdom of his dear Son (1:13):

That’s what conversion is all about. Being delivered from the power of darkness from our bondage in sin: that power of Satan that once held us. And translated into the

kingdom of His dear Son. 13 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회심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받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한 때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지만 이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We read so much in the scriptures of the kingdom of God, and so often we think of that as something totally future. For many people it is. But for you, it should be a present experience. You see, you become a part of that kingdom the moment you bow your knee to Jesus Christ and acknowledge Him as your King and your Lord. I am in the kingdom of God. I have yielded my life as a faithful subject and servant to that kingdom. He is my King, therefore, I am in His kingdom. And so, I have been delivered from the power of darkness, been translated into that kingdom.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흔히들 그것을 미래에 이루어지는 나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미래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 나라는 현재의 경험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주요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 순간 그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습니다. 나는 나의 생명을 신실한 백성과 종으로서 그 왕국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짐받고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In whom we have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even the forgiveness of sins (1:14):

14 절을 봅시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다시 한번 골로새서 1 장의 영광스러운 축복 중의 하나가 나옵니다. 그의 아들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Again, one of the glorious blessings of Colossians chapter one, the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the forgiveness of sins."

그리고 바울은 그의 아들, 예수에 대하여 몇가지를 이야기 합니다. 15 절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로 슬그머니 들어온 영지주의와 그 이단들은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고한 신성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 1 장 18 절 에서 "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고 말했습니다. 14 절에서는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고 하였습니다.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히브리서 1 장을 보면 예수는 "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라고 하였습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형상입니다. 그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입니다. 먼저 나셨다는 것은 헬라어로 우위에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할 때의 첫번째라는 뜻이라기 보다는 모든 만물보다 우월하시다 높으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창조물보다 우월하사 높이 계신 분이십니다

For by him were all things created (1:16),

Genesis one tells us,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word *God* there in Hebrew is *Elohiym*, which is plural. The Hebrew singular for God is *El*. The dual tense is *Eloi*. And *Elohiym* is the plural tense for God. “In the beginning God,” *Elohiym*, plural. And I believe that that is a hint of the Trinity, right in the very first verse of the Bible, the fact that they would use God in a plural form.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Genesis 1:1). 16 절을 보시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창세기 1 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히브리어도 신(神)이란 단어의 단수는 엘(*El*)이라고 합니다. 엘로힘이라는 말은 신(神)이란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은 삼위일체의 힌트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첫 구절에서부터 하나님을 복수형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으로부터 삼위일체가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 1:26)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님이 의논하며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작업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의 복음서 1 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 1:1-3) 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는 창조의 때에 능동적인 창조자(agent)로 일하였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라고 하였습니다. ‘만물’은 문자 그대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이 우주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의 손에 의해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것도 그가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질적인 우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불가시의 세계도 그가 지으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 다양한 계급과 지위의 영적인 존재들,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 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존재들도 다 그가 지으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그가 그를 위하여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창조자이실 뿐 아니라 창조의 목적이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며 또한 그를 위하여 지어진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 우주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를 위하여 지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You were made for His good pleasure and purpose. People don't like that sometimes. They rebel against that which He has given you the capacity to do. Because, when He created you, He created you with a free will or a choice. You were created in His image, and God is the self-determinate being, and thus He created you, self-determinate, the power of choice. And that was necessary in order that He might have meaningful fellowship with you. 우리는 주 예수의 기쁨을 위하여 그의 안에 있는 선한 목적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반항합니다. 그는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결정하시는 존재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힘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참된 교제를 가지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Studying the human body and studying the wisdom of God, I realize how that God could have made us very sophisticated robots, put circuitry boards in us. And could have made us to fulfill all of the functions that we can fulfill as human beings, except meaningful love, meaningful fellowship, and for that, you couldn't have a robot, you've got to have a choice. And so, God created us with a choice, the capacity of choice, and if you will exercise that choice and live for Him, your life will be rich and full and satisfying. If you exercise your choice by living for yourself, your life will be empty, futile and frustrating. He is before all things; "In the beginning, God." 인간이라는 존재와 하나님의 지혜를 연구하면서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참으로 정교한 로보트로 만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속에 반도체 칩을 넣어서 만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진정한 사랑과 참된 교제만 빼고 인간의 육체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과 참된 교제를 원하셨기에 우리를 로보트로 만드실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선택의 능력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풍성하고 풍요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 능력을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공허하고 메마르고 절망적인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수는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He existed before ever there was a world, or stars, or planets, or life forms. Before there were ever angels, He existed. He is eternal; He has always existed. He is self-existent. He is before all things, and by Him, all things consist. The word in Greek

means, *are held together*. A very interesting statement in the light of the discovery of the atoms and the law of electricity. *Coulomb's Law of Electricity* declares that like charges repel. Positive charges repel each other; opposite poles attract. So, there's an attracting force between a positive and negative power. That's what we use in our electricity and running our motors and all, the alternating currents, *Coulomb's Law of Electricity*. But there is the repelling force of like charges, so that there is a repelling force of positive charges. 예수는 이 세상과 별들과 행성들과 생명들이 존재하기 전에 계셨습니다. 심지어 천사들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그는 존재하셨습니다. 그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는 언제나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17 절을 보면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고 하였습니다. ' 그 안에 함께 섰다' 라는 말의 헬라어 뜻은 " 서로 함께 붙어있다" 라는 것입니다. 원자세계의 발견과 전기의 법칙발견을 통하여 참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쿨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극성은 서로 밀쳐낸다는 것입니다. 동인한 극성끼리는 서로 반발하고 반대된 극성끼리는 서로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극과 음극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전기모터를 돌리는 기본법칙이 됩니다.

We used to have a little box that looked like a coffin, and it had a mummy in it. And it was sort of designed rather ingeniously because you could take and pop that little thing on the end. And it had a magnet inside the mummy case, and the magnet would go down to the foot and you'd pop it, and there was a little magnet, or the mummy itself was magnetized, so that when you would pop the magnet down at the foot, you could lay the mummy in it. And it would lie still in the casket. Then, you would take and pop the thing at the head of the casket to pop the little magnet back towards the head, and then you'd hand it to your friend and you say, "See if you can make the mummy lie in the casket." And try as they will, they'd put the little mummy in the casket and it pops right out. Because you've got the positive poles now both at the head of the mummy, and it pops out. And they're mystified, because this mummy pops right out of the casket. And they hold it there for a while and pinch it, you know, and as soon as they let go, it pops out again. And it's just a little trick that was based upon *Coulomb's Law of Electricity* of the repelling force of like poles. 어릴적 가지고 놀던 장난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관처럼 생긴 조그마한 상자입니다. 그 속에는 미이라가 들어있습니다. 아주 독창적으로 교묘하게 만들어진 장난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가서는 뚜껑을 열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미이라 상자 속에는 자석이 들어 있습니다. 미이라의 발치에도 자석이 내려가 있구요, 상자를 엽니다. 그러면 그 자석 또는 미이라에 자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발쪽을 누르면 미이라를 상자 속에 넣을 수 있습니다. 상자 속에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다가 발치에 있는 자석을 은근슬쩍 머리 쪽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상자를 건네 줍니다. “어디 미이라를 다시 상자 속에 넣을 수 있는지 해 봐.” 그러면 친구들을 해 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관 속에 미이라를 넣자 마자 도로 튕겨져 나옵니다. 왜냐하면 머리 쪽에 같은 극성의 자석끼리 치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아마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는 잘 들어갔던 것이 이번에는 바로 튕겨져 나오니까요.이리 저리 살펴보고 이곳 저곳을 만져보다가 다시 집어 넣지만 여전히 튀어나옵니다. 이 장난감이 바로 같은 극성끼리는 밀쳐낸다는 쿨롱의 전기법칙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Now, in the bombarding of the nucleus of an atom, it took six hundred thousand electron volts to insert a proton into the nucleus of an atom. And so, by that they were able to determine that between two protons, there is a power, between ten and fifty pounds, necessary to hold them together. The nucleus of an atom is clustered, protons clustered together. In total defiance to the *Law of Electricity*, the mystery of the universe is, what holds them together? Science does not have an answer. They created an answer a few years ago with what they called the masons, which were, they called “atomic glue.” But then, that has been thoroughly discounted. 원자폭탄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원자의 핵 속으로 양자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무려 60 만 볼트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 전기가 있어야 두 양자 사이에서 위치를 결정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을 서로 묶어놓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원자의 핵은 서로 군집하여 있고 양자 또한 군집하여 있습니다. 전기의 법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우주의 신비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서로 묶어놓고 있단 말입니까? 과학은 답을 주지 못합니다. 몇 년전 어떤 과학자들은 ‘메이슨’ 또는 ‘원자 본드’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답을 지어냈지만 아무에게서도 인정을 받지 못한 이론에 불과합니다.

There was one man, who received his Ph.D. in science, and his thesis was on why the electrons do not collapse into the nucleus of an atom, the protons, following the *Law of Electricity*, with the attracting force of opposite poles. There’s a double mystery. Why are the protons held together, and why don’t the electrons collapse into it? And he wrote his thesis, and his thesis was basically, "They don’t collapse into it, because they don’t collapse into it." And he got his doctorate. We don’t know. And by his confession of the truth, we don’t know. There is no answer except here, “By Him all things were held together." If the Lord would just release His hold, just for a second, this whole physical universe would go up in one big gigantic bang. It would all be over. In the nuclei of every atom in the universe, these positive charges would follow their natural bent and they’d just repel each other and the whole universe would just, “pchoo.” It would be the end of everything in the material universe. By Him all things are held together; Lord,

hang on. 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은 왜 전자가, 상반된 극성끼리는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는 전기의 법칙을 따라 원자핵과 양자 속에서 함몰되어 들어가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중의 신비가 있다고 합니다. 왜 양자는 서로 묶여있는지, 왜 전자는 그 속으로 함몰되어 들어가지 않는지? 그 박사님이 쓴 논문의 내용은 결국 이런 내용입니다. "전자는 함몰되어 들어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함몰되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이것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가 고백한 진실처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함께 서 있느니라"라는 말씀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만일 주께서 붙들고 계신 것을 놓아버리신다면 순식간에 이 온 우주는 산산 조각이 나고 말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장이 날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원자들의 핵 속에서 같은 극성을 가지고 있는 힘들이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서로를 튕겨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주는 "펑'하고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이 물리적인 우주의 종말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오 주님 계속 붙들어 주시옵소서.

And he is the head of the body, the church (1:18):

We need to remember that. There are always those men who are trying to take that position as the head of the body of the church. I think that that is one of the weaknesses of denominations, is that it does sort of carry that power struggle. And men driven by the desire for power seek to gain the control over the denomination. A truly godly minister could care less about being the president of the denomination, or even the Pope. He only wants to be what God wants him to be, if he's truly a godly man. He has no real ambitions to be anything other than what God has called him to be.

But there are men who are driven by the desire for power, and they strive to gain that preeminence and position of the head of the church. And it's always rather sad to see it, for Christ is…

그리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1 장 18 절)

교회라는 몸의 머리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를 쓰는 인간들이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교단제의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기 위해 혈안이 된 사람들은 교단을 좌지우지 해 보려고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 교단의 지도자가 되는데에는 관심이 없어야 합니다. 설령 그 자리가 교황의 자리와 같은 높은 자리라 해도 말입니다. 그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의 모습이 되기만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의 분수를 넘어서 다른 것이 되어보려는 야망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머리 위치,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고만 애를 씁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왜냐 하면 오직 주님께서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 *And he is the head of the body, the church: who is the beginning, the first-born from the dead;* [Now, others rose from the dead before He did, but He is "the first-born" in that He is never to die again. Those that were raised from the dead before, died again, but His is unto eternal life.] *that in all things he might have the preeminence (1:18).*

Now that is the purpose of God and the plan of God, is that in everything Jesus has the preeminence. All things, again, includes you. And so, the question, does Christ reign preeminently in your life? Does He have the preeminence? You see, that's the purpose and the plan of God for Jesus Christ, that He has the place of preeminence in each of our lives. That He is above everything else in our lives, that nothing supersedes the place of Jesus Christ in my life. 모든 만물 중에서 예수께서 으뜸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며 계획입니다. 모든 만물 속에는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으뜸이 되어계십니까?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으뜸의 자리에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계획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모든 만물보다 높이 계시며,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뜻이십니다.

Now, not just a mouthing of it, "Oh yes, Christ is preeminent," but in the reality, the actuality. And I'm afraid, when it comes down to reality, when it comes down to actions, that many of those who do lay claim to being Christians, the truth of it is, Christ is not preeminent in their lives. Now, let's not look at them; let's look at ourselves. You see, I'm not going to have to answer for them; I'm going to have to answer for me. When I stand before God, I'm only going to be responsible for this fellow right here. And I'm going to give an account unto God for me. And therefore, it is important, not that I examine other people's commitment, but that I examine my own commitment. That I not look at other people's failures, but I look at my own failures and judge myself. But that's important for each of us. That we will each just look at ourselves and judge ourselves, for if we will judge ourselves, then we will not be judged of God. 그저 입술로만 '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으뜸이십니다'라고 말하지 맙시다. 정말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챤들이 안타깝게도 실제로는 그 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으뜸으로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지 맙시다. 우리 자신을 봅시다. 나는 그 사람들을 대변하여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그 때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여기 서 있는 나 자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를 보고하는 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얼마나 헌신하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자신의 헌신만을 점검해 보십시요.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지 마시고 나 자신의 실패를 살피시고 판단하십시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엄격하게 판단해 보는 것.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판단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For it pleased the Father that in him should all fullness dwell (1:19);

Our minds cannot really grasp that particular phrase. It's pleased the Father that in Him, in Christ, should all of the fullness of God, that God had dwelt, the fullness of the Godhead bodily dwells in our Lord. We get that in chapter two, we are complete in Him.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1:19)

사실 이 구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잡아낸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안에 친히 거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이 육체의 형태로 주님 안에 존재하였다는 것입니다. 2 장에서 또 한번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해 졌습니다.

> *And, having made peace through the blood of his cross, by him to reconcile all things unto himself; by him, I say, whether they be things in earth, or things in heaven. And you, that were sometime alienated and enemies in your mind by the wicked works, yet now has he reconciled (1:20–21)*
>
>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화목케 하사 (1:20-21)*

And so, Jesus has made peace with God possible for man. Man was at war with God. Man was rebelling against God. We all were in that rebellion against God, as we walked our own path, as we went our own way. As we were following after the desires of our flesh and of our mind, we were at war with God, rebelling against the law of God and the commandments of God. But Jesus, through the blood of His cross providing a righteous basis for God's forgiving us of our sins has made peace with God possible. As He reconciles all things unto Himself. So we are told, "Be ye therefore reconciled unto God." Don't be at war with God; be reconciled unto God. And all things have been

reconciled through Jesus Christ, whether they are things in earth or in heaven. And you, that at one time were alienated from God; you were enemies of God in your mind and by your wicked works, you've now been reconciled. 예수께서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사람이 화평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거스르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였습니다. 제 갈 길로 행하며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살았습니다. 우리 육체와 생각의 정욕을 좇아 살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어기며 거스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의의 기초를 제공하셨고,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마십시요.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되었습니다. 한 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과 악한 행동으로 하나님과 원수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과 화목화게 되었습니다.

In the body of his flesh through death, to present you holy and unblameable and unreprovable in his sight (1:22):

Now, you see, through my faith in Jesus Christ, I have been forgiven all of my sins and transgressions. So that when Jesus presents me to the Father, He's going to present me blameless, unreprovable, holy. In Jude we read, "Now, unto Him who is able to keep you from falling, and to present you faultless before the presence of His glory with exceeding joy" (Jude 1:24). Oh, do you realize what Jesus Christ has provided for you? The total pardon and forgiveness of your sins and your transgressions. He has, as you are in Christ. God sees you as holy and pure and righteous, for the righteousness of Christ has been accounted or imputed unto you through your faith in Jesus Christ. Not through your efforts, not through your great commitment. Not through your tremendous sacrifices, but through your simple faith in Jesus Christ, God has accounted you righteous. God looks at me tonight as righteous. Now, I don't even look at myself that way. I look at myself and I see all my flaws. I see all my failures; I see my weaknesses. But God sees me in Jesus. And as He looks at me in Christ, He sees me without blame, holy, unreprovable. Oh, I love that. How thankful I am for that place I have in Christ tonight. Because of Him, God sees me as perfect.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1:22)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먼 훗날 예수께서 나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때 주님은 나를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자로 소개하실 것입니다. 유다서를 보면 주께서는 "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1:24)"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마련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십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한 전적인 용서와 용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금 거룩하고 순전하고 의로운 존재로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에게로 전가, 또는 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을 통하여서도 아니요 위대한 헌신을 통해서도 아닙니다.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단순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의로운 존재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밤 나를 의로운 존재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 투성이인 자신을 바라봅니다. 실패자로 자신을 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나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실 때 그 분은 나를 흠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바라보십니다. 오! 너무 좋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진 그 은혜의 자리로 인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완전한 존재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 *If you continue in the faith grounded and settled, and be not moved away from the hope of the gospel, which you have heard, and which was preached to every creature which is under heaven; whereof I Paul am made a minister (1:23);*

So again, the mention of the fact that the gospel had been preached to every creature. They were thorough in their evangelism in that first generation.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군이 되었노라(1:23)

다시 한번 복음이 모든 만민에게 전파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세대에 그 사명을 완전하게 이루었던 것입니다.

> *Who now rejoice in my sufferings for you* [and Paul's talking about himself: I now rejoice in my sufferings for you], *and fill up that which is*

behind of the afflictions of Christ in my flesh for his body's sake, which is the church (1:24):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1:24)

Now, this is a very difficult scripture to understand. Then I will frankly confess to you, I am not certain that I do understand the full implications of it. Does seem that Paul is saying that, in some way, he is completing the afflictions of Christ in his own body, for Christ's body sake, the church. Now, it can only be understood if we understand the relationship of Jesus to His church or the relationship of Jesus to you. Whatever reproach you bear for your faith in Jesus Christ is really reproach that is being directed at Jesus. Whatever suffering you bear for Jesus Christ's sake, that suffering is being directed at Jesus. And so, Paul recognized that these beatings that he received, the stonings that he received, the suffering that he was subject to, and the imprisonment and all, were because of man's animosities against Jesus Christ.

이 구절은 이해하기 참으로 어려운 구절입니다. 여러분께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구절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는 뜻일까요?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관계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바르게 이해될 수 없는 구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위하여 받는 비난은 예수님께 대한 비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가 당했던 매질과 돌로 맞은 것과 고난과 감옥에 갖힌 것과 모든 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적대감 때문에 받은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So that he was suffering for Christ's sake; he was in prison for Christ's sake. He was actually taking the sufferings of Jesus Christ, or the reproaches of Christ, the feelings that man had in his natural heart against Jesus. The hatred that man had against Jesus, Paul was privileged to bear it. "I rejoice that I can bear these things that are directed at Jesus, that I have this privilege of filling up the afflictions of Jesus. That is, that the feelings that man have of antagonism towards Jesus are directed at me, and I'm able to take them for Him." And Jesus so identifies with us, that He shares with us in this suffering. He said, "Count it all joy when you fall into diverse temptations, trials" (James 1:2). "Don't count it a strange thing concerning the fiery trial which is to try you, as though some strange thing has happened to you. Rejoice!" (1 Peter 4:12) "Blessed are ye

when men shall revile you and persecute you and say all manner of evil against you falsely for my sake and for the gospel's, for great is your reward in heaven, for so persecuted they the prophets that were before you" (Matthew 5:10-12). So, filling up of the sufferings of Christ.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옥에 갖혔습니다. 그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비난과 적대감을 자기 몸으로 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내가 짊어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기뻐하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안에 쌓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이다. 나는 주를 위하여 기꺼이, 주를 향한 인간들의 적개심을 받아들이고자 하노라." 예수께서는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 하셨습니다. 그 분은 심지어 우리의 고통에도 동참하셨습니다. 주님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약 1:2)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벧전 4:12)고 하셨습니다. 또한 "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마 5:10-12)고 말씀하셨습니다.

Man, the natural man, still hates Jesus, and as you stand there before Him as His representative, you receive his abuse that he is really directing in his heart towards Jesus. Now, they counted it a privilege that they were able to do that. They rejoiced that they were able to take that suffering for Christ's sake. Don't take it personally. A lot of times we are so sensitive. Someone says something and we take it personally, as though they're directing it at us. No, it's being directed at Christ. And it's because that I'm Christ's representative that I'm standing there and receiving it. And if I look at it that way, then I can rejoice, Lord, that you've counted me worthy to suffer for Your sake as did the apostles in Acts, chapter four. Lord, oh my, You counted us worthy to suffer for You. So, I… 인간은 아직도 예수를 싫어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들로서 여기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모욕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예수를 향하여 퍼붓는 모욕입니다. 초대교회 교우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였으며 즐거워 하였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요. 우리는 때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말하면, 그들이 마치 우리를 향하여 말하는 것처럼 여기고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대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 자리에 서서 그 모욕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 주님. 사도행전

4 장에서 사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도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로 여겨주신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주여. 주께서 나를 그런 자격이 있는 자로 여겨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 *now rejoice in my sufferings for you, and fill up that which is behind of the afflictions of* [in that I am receiving the afflictions that are directed at] *Christ in my flesh for his body's sake, which is the church: whereof I am made a minister, according to the dispensation of God which is given to me for you, to fulfill the word of God (1:24-25);*

So, Paul is been made a minister, according to God's plan to fulfill the word of God.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군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1:24-25)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의 일군이 되었습니다.

> *Even the mystery which has been hid from ages and from generations, but now is made manifest to his saints: to whom God would make known what is the riches of the glory of this mystery among the Gentiles; which is Christ in you, the hope of glory (1:26-27):*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옴으로 감취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1:26-27)

The glorious mystery of God is that Christ will come and indwell you.

The other day we had an opportunity of sharing the gospel with the King of Laos. And as I was sharing with him, I knew that he was a Buddhist. And Buddhists… Buddha did teach that a man's problems and the evils of the world all stem from the material world, the flesh and the material world, and that if a man could completely disassociate himself from the material world, heaven was to dwell in the spirit and not have anything to do with the material. In other words, to be totally removed from the material is to enter into Nirvana. And so that is, of course, the hope and the goal of the Buddhist, is to, through asceticism and all, denying the flesh, fastings, and all these things, to completely disassociate himself from the physical that he might enter in to the

total spirit which is Nirvana. And if you don't make it this round, then hopefully, next round you'll improve, and if you don't make it then, then next round.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밀은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저는 라오스 국왕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동안 저는 그가 불교신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는 인간의 문제와 이 세상의 고통이 물질세계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인간의 육체와 이 물질세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인간이 이 물질적인 세계로부터 전적으로 자신을 단절시킬 수 있다면, 열반, 곧 극락세상이 영혼 속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극락세상, 즉 천국은 물질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교신자들의 소망과 목표는 금욕입니다. 모든 육체적인 욕망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자신을 철저하게 물질세계로부터 단절시켜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금생에서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면 내세에서 다시 한번 정진해 볼 것이며, 내세에서도 안된다면 그 다음 생에서 다시 한번 시도해 본다는 것입니다. 또 안되면 또 다른 생에서…

Of course, the interesting thing, is there must, you know…when we started out with only one, how come we have so many billions today? Where are they coming from to be reincarnated? There have got to be a lot of new bodies being formed, because we started out with fewer spirits than we now have. Look how many spirits we've got around here today in the world, you know, in fact, what is it, about 10 percent of the people who ever lived in the history of man are living at the present time. So, sort of upsets that reincarnation bit.

재미있는 사실은 만약 그런 환생이 있다면 우리 인류가 한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지금 수 십억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환생되어 나온 사람이라면 그들은 이전에 누구였었나요? 우리 시대보다는 전 시대의 사람들의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영혼들이 탄생을 했었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지구상의 인구 숫자를 세어 보십시요. 역사상 살았던 인구의 10% 정도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살고 있습니다. 암튼 환생론은 말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But, knowing that he had this background as a Buddhist, I shared with him that the Bible teaches that man basically is spirit. He lives in a body; he possesses a consciousness. But if a man lives on the body side of his life, he is living less than God would have him to live, for God would have us to live on the spiritual side of our lives. So, if my body is ruling, and I'm ruled by my fleshly appetites, then I'm living a life

alienated from God. But to live in fellowship with God, I must live after the spirit, the spirit-dominated life. Knowing that, essentially, this is what Buddha taught.

하여튼, 라오스 국왕이 불교신자라는 것을 알고 난 후, 저는 그에게 성경의 인간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존재이다. 인간은 육체 속에 살고 있지만 양심을 가지고 산다. 만일 인간이 육체적으로만 산다면 그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은 살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다. 때문에 나의 육체가 나를 지배한다면, 즉, 육체적인 욕망이 나를 지배한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을 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귀며 살기 원한다면 나는 영을 따라 살아야 한다. 영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실 부처가 가르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And I said, you know, there had been other religious leaders in history who taught important truths concerning how a person should live after the spirit, but I said the problem was, having taught the truth and pointed to the path, they could not give you the power to walk in that path and that often times is totally frustrating. Because I listen to what they say, I consent, and I say, "Hey, that's right; I want to live that way. I don't want to live after my flesh; I want to live after the spirit in fellowship with God." But, I said, not being given the power to do it, it only frustrated me. So, God sent His Son, Jesus Christ, to die for my sins, to provide forgiveness for my sins. And then I said He did something else, He rose from the dead. And then He said, "Now, I will come and dwell in you and by My dwelling in you, I will give to you the power to walk this path." You don't have it in yourself; you can't do it in yourself, but I will dwell in you, and I will live in you, empowering you to do it. And I said, that basically is the chief difference between Christianity and the other religions of the world. With Christianity, the power is imparted by the indwelling of Jesus Christ. It isn't just pointing to the path and saying, "That's the way you should walk." But it is coming in and giving you the capacity and the power to do it.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인간은 영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이 중요한 진리를 가르친 위대한 종교지도자들이 여러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진리를 가르쳤고 갈 길을 보여주었지만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지는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맥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듣고 옳거니 합니다. "맞아. 바로 저거야. 저렇게 살아야겠다. 내 육체를 따라 살지 말아야지. 이제 하나님과 사귀며 영을 따라 살아야지"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절망감이 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사 나의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용서를 베풀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뭔가 다른 일을 하셨습니다. 그 분은 죽은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거하리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로 하여금 이 도를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얻게 하리라. 너희 안에는 그 힘이 없느니라. 너희 스스로는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 안에 거하여 같이 살게 되면 너희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내가 주리라. > 저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세상의 다른 종교를 구분하는 주요한 차이점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권능을 내려받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단지 "이것이 너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라고만 말하고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주십니다.

Pray for the King of Laos, that the word of the gospel that was planted will take root. And as he acknowledges his own failures to disassociate himself from the flesh that he will seek that power of the indwelling Christ as we have here, "the mystery…which is Christ in you, the hope of glory." That's the hope that we have. I can never do it myself, but He has come to live in me and to give me the capacity to do it.

라오스 국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요. 그에게 뿌려진 복음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요. 그리하여 그가 금욕을 통하여 육체로부터 떠나려고 했던 자신의 종교적인 노력이 허사였음을 깨닫게 되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하게 될 것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 *Whom we preach, warning every man, and teaching every man in all wisdom; that we may present every man perfect* [complete] *in Christ Jesus (1:28):*

And so, that is the purpose of the ministry, is to bring you into the full maturity in Christ Jesus. And what did God…all of the churches were dedicated to this. For years my ministry was dedicated to bringing people to Christ Jesus, but never to bringing them to the full maturity in Christ Jesus. Evangelism was my bag, the big thing. And the church was weak. Paul's desire is teaching. His purpose was to bring them into the full maturity in Christ.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1:28)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사역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며, 모든 교회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헌신되어있는 것입니다. 한 때 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인도하는데에만 몰두를 하고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데에 이르기까지 양육하는데에는 온전히 헌신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복음전파는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고 멋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약하였습니다. 바울의 소망은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데 이르기까지 양육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Whereunto I also labor, striving according to his working, which works in me mightily (1:29).

You know, I'm going to stop right there, because there is so much in chapter two, and that I don't want to get started and then have to rush the thing at the end, which I have a tendency to do when I get carried away in the first part of the lesson. I have that tendency, you know, to then rush through some extremely important passages of scripture. And chapter two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hapters in the New Testament, and I don't want to just rush through it. So, we're going to stop right there for tonight. And next week, we'll take chapter two, three and we might…well, four is really just sort of the final greetings and all, so that we can pop through in a hurry. But the real teaching lies in chapters two and three. As I say, four just is, sort of, goodbye and the personal greetings to the different ones.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1:29)

이 구절만 보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2 장에서 나눌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2 장을 시작하게 되면 대충 훑고 지나가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시간에 쫓기게 되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도 대충 훑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 여러분 모두 아시죠? 2 장은 신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의 하나입니다. 대충 훑고 지나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밤 설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2 장, 3 장, 그리고 4 장을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 장은 인사말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면 4 장까지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은 2 장과 3 장에 들어있습니다. 4 장에는작별인사와여러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안부를 묻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Father, we thank You tonight for Jesus Christ. Your only begotten Son, who came to this world to manifest the Father, was the express image of God, the creator of this

whole vast universe. What a marvel that He should walk upon this planet earth, eat with men, sleep with men, talk with men and touch men. Oh, God, how we marvel at the mysteries of the incarnation, God in Christ, reconciling the world to Himself. But even of the greater mystery, that same Jesus, who died and rose again, who created the earth, who holds the worlds together, now dwells in our hearts and empowers our lives. Lord, how awesome that You should dwell in us. May we yield to You our bodies as instruments through which Your will might be accomplished. In Jesus' name we pray, Father. Amen.

하나님 아버지. 이 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독생자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친 형상이시며 이 온 광활한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 분께서 이 지구상에 오셔서 걸으시며 인간과 함께 음식을 드시며 같이 주무시고 이야기하시고 만져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오 하나님 성육신의 신비에 우리는 감탄할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당신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신비는, 이 세상을 지으셨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또한 세상에 오사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서, 이제 우리 영혼 속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당신께 우리의 몸을 드려 당신이 쓰시는 도구가 되기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May the Lord bless you and help you as you, sort of, digest the truth. That it might become a very part of your life. And that indeed you might discover that great power that resides in you as a child of God. That mystery of God, Christ in you, the hope of glory. And may His power bring strength and victory to your life this week. May He demonstrate that power by giving you victory over an area in your life where you've been stumbling for a long time. May this week you begin to experience real victory there for His glory. Recognizing, "Hey, this is nothing but the power of Jesus Christ dwelling in me." Thank you, Lord. God bless you and be with you as you walk with Him. In Jesus' name.

주님께서 진리를 구하는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진리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힘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안에 숨어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며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힘을 받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러분이 오랫동안

넘어지고 이기지 못했던 삶의 부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능을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진정한 승리를 맛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것이 가능하구나”라고 외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가시는 모든 길에 동행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Colossians 2-4
Tape # C2610
By Chuck Smith

Shall we turn now in our Bibles to Colossians, chapter two.

Paul had never visited Colosse. He had heard of the church from Epaphras, who was the minister there, who had told Paul of the love that these people had for Jesus Christ and of the faith. But he also told him of certain heresies that were trying to infiltrate the church. And so, Paul is writing to warn them against these heresies. And so in verse one of chapter two, he said,

골로새서 2 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서 목회를 하였던 에바브라로부터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듣게 됩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바울에게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라는 또한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어떤 이단에 대하여서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단에 대하여 경고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2 장 1 절을 보면

> *For I would that you knew what great conflict I have for you, and for them at Laodicea, and for as many as have not seen my face in the flesh (2:1);*

Paul is talking about this inner conflict that he had for them, a love that he had for them. The desire that he had to actually meet them and to see them. And though having not seen them, yet he is greatly concerned for them. He's concerned because of these heresies that were spreading like a plague through the church. And I don't know why it is, but it seems that lies or heresies fly on the wings of eagle and the truth goes on the back of a turtle. Heresies can spread so rapidly around the world. And it seems like people have a penchant towards heresy and so reluctant to follow the truth. And as it was in Paul's day, so it is today. We find how that these heresies that sweep across our country actually sweep across the world. And people get caught up in them all over the world. And this caused Paul tremendous inner conflict, a great concern, a great burden.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2:1)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갈등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을 만나보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한번도 만나보지 못했으나 바울은 그들을 진정으로 아끼고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바울은 전염병처럼 교회 속에 번지고 있었던 이 이단들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왜 진리는 거북이 등을 타고 전해지는 반면에, 거짓말과 이단은 독수리 날개를 단 듯 삽시간에 퍼지는지 저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단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세상에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은 이단은 좋아하고 진리를 따르는 것에는 머뭇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이 나라를 휩쓸었던 이단이 결국 전 세계를 휩쓸어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이단에 잡혀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문제가 사도 바울의 내면에 심각한 갈등과 근심과 부담을 야기하였습니다.

Paul's prayer or desire for those who he had never actually met face to face, was…

> *That their hearts might be comforted, being knit together in love, and unto all riches of the full assurance of understanding, to the acknowledgement of the mystery of God, and of the Father, and of Christ (2:2);*

Now, one of the heresies that was being promulgated there in Colosse was the Gnostic heresy. The people took their name to signify their pretended superior knowledge.

자신의 얼굴을 실제로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향한 그의 기도, 또는 소망은 이것이었습니다.

> *이는 저희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2:2)*

골로새 교회에 퍼졌던 이단들 중의 하나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초월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척 하기 위하여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Quite often, you can tell a lot about a group by just the name that they choose. And whenever they choose some weird name for their fellowship, you know that there is something weird about the fellowship. And certain names do just sort of give you the hint to characteristics of the fellowship itself.

Now, the word Gnostic means to know. The Gnostics pretended that they had higher knowledge of mysterious things. And the Gnostics used to love to talk of the mysteries. And you had to really be initiated into their little club to be able to understand these mysteries, and they were always prating on this term, “the mysteries.” And so Paul picks up their term, and his desire is that they might come to the acknowledgement of the mystery of God and the Father and of Christ, which he told us in the previous chapter was, “Christ in you, the hope of glory" (Colossians 1:27). Now their hearts might be comforted. Secondly, that they might be knit together in love. What a wonderful thing when a church is just tied together in the love of Jesus Christ. And then, that they might experience the riches of full assurance.

이름을 보면 그 집단의 성격을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이름을 가진 집단은 뭔가 이상한 구석이 있는 법입니다. 영지(Gnostic)라는 말의 뜻은 ‘안다’라는 뜻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비밀(mystery)의 세계에 대하여 남들보다 고차원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척합니다. 비밀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집단에 가입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비밀’이라는 단어를 쉴 새 없이 지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그의 소망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는 1 장에서 말한 것과 같이 “영광의 소망”이시라는 것(1:27)을 그들이 깨닫기 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이 위안을 얻게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두번째로는 그들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가 사랑 가운데 연합하게 되면 그들은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충만한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It’s sad really that a lot of people struggle most of their Christian life with a lack of real assurance of their salvation. For years I wasn’t really sure if I was saved or not, and I was going down to the altar every Sunday night to sort of confirm my salvation. But that’s a tough way to live. What a blessing it is to have the full assurance. That’s the purpose for which John wrote his little epistle, “These things write I unto you that believe on the name of the Son of God, that ye may know that ye have eternal life" (1 John 5:13). And what a blessing when you have that full assurance as we sing, “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And this full assurance is what Paul was wanting them to experience.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을 볼 때 참으로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한 때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는지를 확신하지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저녁이면 제단 아래에 무릎을 꿇고 구원을 확신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충만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일 5:13) 충만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정말 크나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을 골로새 교인들이 경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Now, how can I have full assurance? Only as I come by faith, trusting in the grace and the mercy of God, through Christ. If I am depending upon my efforts and my works to make me righteous, I can never have full assurance. So anybody who has this legal relationship with God or work relationship with God does by its very nature lack the full assurance of his salvation. It is not until you've really have come to that understanding of the grace of God and our position in Christ that you can really enjoy the full assurance. Paul's desire is that they might have this full assurance and the understanding and the acknowledgment of the real mystery. It's not some effort that I might put out to be righteous, but the real mystery is that it is Christ in me. That's my hope of glory, that work of Jesus Christ in me. And then, of course, because they were talking always about this superior wisdom and understanding and knowledge, Paul declares,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구원의 확신을 충만하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믿고 신뢰할 때만 가능합니다. 행위와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결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율법적인 관계 또는 행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충만한 확신이 본질적으로 결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지위를 진정으로 이해할 때 비로소 충만한 구원의 확신을 즐길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소망은 골로새 교인들이 이러한 구원의 확신과 이해와 진정한 비밀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의롭게 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비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분이 나의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십니다.

다시 영지주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들은 항상 우월한 지혜와 지식과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 *In whom are hid all the treasures of wisdom and knowledge.* [It's all tied up in Jesus Christ.] *And this I say,* [Paul said,] *lest any man should beguile you with enticing words. For though I be absent in the flesh, yet I am with you in the spirit, joying and beholding your order, and the steadfastness of your faith in Christ (2:3-5)*
>
>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취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의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2:3-5)

So Paul said, "I'm not really there physically, but I'm there spiritually." We've got to many people that attend church that way, there in the spirit but not in the flesh, not in the body. "Oh, I was with you in my spirit, brother." Oh great, you know, if the whole church was like that, we'd have nobody here. We'd have to close our doors. There'd be no sense of existing. But Paul said,

> *I am beholding your order, and the steadfastness of your faith in Christ. As ye have therefore received Christ Jesus the Lord, so walk ye in him (2:5–6):*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령으로는 교회에 다니지만 육신과 몸으로는 다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형제님. 제가 영적으로는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면 이 교회당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겠지요. 그러면 교회 문 닫아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 다니는 것은 실제로 다니는 것이 아니지요. 어쨌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의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2:5-6)*

Now, here to me is an interesting thing. Usually, people are pointed back to their roots. As you've received Christ Jesus the Lord, so walk ye in Him. Most of those who have some false doctrine or heresy to promote do not seek to promote it upon the unevangelized, but they seek to promote it upon the church. Very few heresies are evangelistic. They don't prey on the sinners; they prey on the saints. They don't go to the beach to proclaim their ideas. They go to the church, and they try to infiltrate within the church. And then give, "Well, I received this new revelation." Or, "Have you heard this new prophet of God and some new understanding or new revelation?" And that is why they are usually pointed back to their roots, because those who are evangelical, those who are really out bringing the lost to Jesus Christ are usually prompted by the truth of the gospel.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은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꼬드깁니다. 불신자를 전도하는 이단은 아주 드뭅니다. 그들은 죄인들을 먹이로 삼지 않고, 성자들을 먹이로 삼습니다. 그들은 이단을 전하기 위하여 바닷가에 가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로 갑니다. 교회에 이단을 침투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제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어요." "새로운 선지자의 말씀, 새로운 계시를 들어보셨어요? " 골로새 교인들이 왜 근원으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들, 밖에 나가 잃어버린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이들은 복음의 진리로 인해 힘을 얻어 그리하기 때문입니다.

And the gospel has always, as its natural effect, evangelism, reaching the lost, but not so those who are carriers of heresy. They want to be parasites. They want to live off the church. They want to bring to the church some new revelation. "Our ministry is not really to the lost; our ministry is to the church. Our truth that we have to share, it's for the church." And so he points them back to the beginning, as you've received Christ Jesus so walk ye in Him. Don't get carried off with some of these new revelations that God has just unveiled in these last days. Actually, we don't need any new revelations of truth. What we do need is new experiences in the established truth. God has given to us all that we need for the life of godliness in His word; it's all there. We don't need any new revelations. But what we do need is fresh experiences in the old truths of God's word. So beware, lest any man would beguile you with enticing words. For as

you've received Christ, so walk ye in Him. Rooted and built up in Him. Christ is the base, the foundation. But He is also the One on whom we build. Our lives are to be centered in Jesus Christ. 복음은 본질적으로 언제나 전도를 낳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가 갑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생충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교회에 기생하며 살고자 합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새로운 계시를 가지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역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는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은 교회를 위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진리는 교회를 위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였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합니다. 말세에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보이시는 새로운 계시에 현혹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진리의 계시가 필요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세워진 진리 안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안에 경건한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담아두셨습니다. 새로운 계시가 전혀 필요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옛 진리 안에서 신선한 경험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여러분을 유혹하는 말로 기만하지 못하도록 조심하십시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십시요.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서 자라나십시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실한 기반이요 기초가 되십니다. 그 분 위에서 우리가 지어져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초점을 맞추는데 있습니다. 골로새서 2 장 7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 □□ □□□ □□□ □□□ □□ □□□ □□□□ □□□ □□ □□ □□□□ □□□ □□ (2:7)

Rooted and built up in him, and established in the faith, as ye have been taught, and abounding therein with thanksgiving (2:7).

So again, back to your roots. Your roots were in Christ Jesus. You were taught to believe and trust in Jesus Christ for your salvation,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Now, don't try to improve by your works upon that righteousness which God has imparted to you through your faith.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우리의 뿌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뿌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박혀 있습니다. 구원과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뢰하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선물로 주신 의로움 위에 여러분의 행위를 더하여 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요. "

Beware lest any man spoil you through philosophy and vain deceit, after the tradition of men, after the rudiments of the world, and not after Christ (2:8).

And so the twofold warning: those that would beguile you with their enticing words away from the roots in Christ Jesus, and then those who through philosophy, the vain deceit which are after the traditions of men. For Christ is the center of our experience and

□□ □□□ □□ □□□□ □□□ □□□□ □□□□ □□□ □□□ □□□ □□□ □□ □□□ □□□□ □□□□□ □□□ □□□□ (2:8)

사도 바울은 2 중적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뿌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들, 그리고 이번에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들의 헛된 속임수는 사람의 유전을 좇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모든 경험의 중심에 계십니다. "그 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계십니다" (2:9)

For in him dwelleth all of the fullness of the Godhead bodily (2:9).

He's everything; He's all. And in Him dwells all of the fullness of the Godhead bodily.

Now, one of the things, of course, the Gnostics were denying was the deity of Jesus Christ or the incarnation that God came in a human form. Paul is affirming that truth.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 분이 전부이십니다. 그 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셨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분명히 선포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온전(충만)해 졌도다"(2:10)

And ye are complete in him (2:10),

Oh, God, help us to realize that you are complete in Him. Your righteousness is complete; your salvation is complete. You cannot add to it. You are complete in Him. How many times in my endeavors to please God would I promise God that I was going to be better. I would make so many promises to God. "Lord, I'm going to pray more. Lord, I'm going to read the Bible more. Lord, I'm going to improve upon that righteousness. I'm going to be better; I'm going to be more righteous this week." And I was endeavoring by my efforts, by my works, to be accepted by God and to be righteous before God. And that was a

struggle. Oh, would to God that I had someone teaching me in those days that I was complete in Jesus Christ, to just trust in Him and rely upon Him that I am complete; there's nothing that I can add. If you're complete, you can't add to that. You're complete in Him. 오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온전해졌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는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도 온전한 것입니다. 거기에 뭔가를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해 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사람이 되겠노라고 수 많은 약속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더 많이 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더 많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좀 더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조금 더 의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노력했습니다.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그 때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다고, 그러므로 이제 잠잠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함을 신뢰하기만 하면 된다고, 내가 더 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가르쳐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다면 여러분이 무언가 더할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들입니다.

Which is the head of all principality and power (2:10):

Now, the head there is used in the same sense as it is used in first Corinthians seven, as authority. So, Jesus has authority over all the principalities and powers. And we have told you before that principalities and powers are rankings of spirits.

10 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기서 말하는 머리는 고린도전서 7 장에서 사용되었던 머리와 같은 뜻의 단어로서, 즉, 권위(authority)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모든 정사와 권세들 위에 군림하시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들이라는 말은 영적인 존재들의 서열을 의미합니다.

Now, in the beginning, when God created the universe and then God first created angelic beings, millions of them, hundreds of millions of angelic beings. These angelic beings that God had created were in different ranks and orders. There were the cherubim, there were the seraphim, there were the principalities and powers and authorities and dominions, the various rankings of spirit beings. And when Satan, who was one of the highest ranking of spirit beings in God's

creation, when he rebelled against God, there is an indication in the book of Revelation that a third of the angels joined in his rebellion. Which means that God created them as free moral beings, even as He created us as free moral agents, making our own choices. And so, those that chose to go with Satan were probably equally out of each the various ranks. So principalities and powers can refer to the fallen angels, or it can refer to those that are still in obedience unto God. Regardless, Jesus has authority over them all. Naturally, those that are still obedient to God in that ranking, He rules over them, but also those that have rebelled against Him are still under His authority.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수 천 수 백 만의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은 각기 다른 서열과 순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케루빔이 있었고, 세라빔과 정사들과 권세들과 지배권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서열의 영적인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으뜸가는 서열에 있던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3 분의 1 이나 되는 천사들이 그와 합세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인간과 같이 자유로운 선택을 내실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합세하였던 천사들도 아마 다양한 서열의 천사들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정사와 권사들은 타락한 천사들, 아직도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보다 우월한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지배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는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주님의 권위 아래에 굴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Now, I don't like to be misunderstood, and this is a difficult concept sometimes for people to grasp. But in the overall picture, Satan is performing the will of God. That is, he is doing a service that God intended for him to do. You see, God uses him for the purpose of testing our devotion and commitment to God. If it were not for Satan, God would really not know, except that He has all knowledge. But you really would not know that you love God and thus as God said, "I've proved you." It was really not that He might understand, but that we might understand ourselves. And so the purpose of the testings and the provings is for our benefit, that we might know exactly where we stand. You test materials in order to know their strengths and their weaknesses, and as God tests us, we come to the understanding of those places of weakness. And Satan is being used by God, fulfilling a purpose of God in the world today. It's tragic and sad that he

has that lot, but such it is. Now, he chose that, even as men today choose to rebel against God. So he cannot really blame God. 이제부터 드리는 말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러한 사상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도구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신 것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아시기 위하여 사탄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시험이 없다면 우리는 자신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는지 알았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무언가를 깨달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검증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것의 강점과 약점을 알기 위하여 테스트를 해 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테스트해 보십니다. 우리의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탄이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비극적이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으나 그것이 현실입니다. 사람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스려 반역하는 것처럼 사탄도 그렇게 하나님을 거스렸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Like Judas, he was sort of in a tight place. The Bible predicted that Jesus was to be betrayed by one of His friends. Jesus said of Judas, "It had been good if that man had never been born" (Matthew 26:24), because he was destined to betray Jesus Christ. Now, in the same token though, that was a part of the predestined plan, yet Judas consented to it and chose to betray the Lord. Hard concept, really, to grasp. And I'm not sure that we do fully grasp them. Satan was destined to be the instrument by which man might be tested, and yet, he chose to rebel against God. But even in his rebellion, he is performing that which God has purposed, and he remains subject unto God. God sets the limits and the bounds to which he can go. When he was appearing before God, in the case of Job, and complaining that God had a…"You've got a hedge around him; I can't get to him. Take away the hedge. Let me get at that guy, he'll curse you to…" God, first of all, had the hedge around Job. When God removed the hedge, He still set the limitations. "All right, you may go so far, but don't do this." And so Satan still had to be subject unto the authority of God, and remains. God sets the

boundaries in which he can work. God sets the boundaries in which he's allowed to harass you. He can go so far, no further. God sets the boundaries and thus he has to be in authority unto God. 유다와 같이 사탄은 곤경 속에 처해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그의 친구들 중 하나에게 팔려가리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마 26:24)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여 팔도록 운명지워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미리 예정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거기에 동의를 한 것이고 주님을 배반하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저 또한 이 진리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데 도구로 쓰이도록 운명지워졌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거스리고 반역한 것입니다. 그의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획하신 것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께 지배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의 한계와 경계를 지어 놓으셨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렇게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그래서 내가 그를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산울을 제하시옵소서. 내 손에 붙여주소서. 그러면 그가 당신을 저주하리이다" 이렇게 사탄은 아직도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 아래에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미리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사탄은 오직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경계 안에서만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갈 수 있지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복종하며 살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It is always wrong to think of Satan as opposite of God, not even close. You can make no comparison between Satan and God as far as opposites or even alikes. For God, again, is infinite, eternal, omnipotent and Satan is a created being. And so, if you want to look for an opposite of Satan, you should look at Michael or at Gabriel, those angels which remain true to God who have a high ranking or the highest ranking among angels. But never think of Satan as an opposite of God, because you're accrediting him with far more power than he actually has, far more authority than he actually has. He moves within restricted boundaries. God sets the limits of his work. So, all of the principalities and powers are under the authority of Jesus Christ. He is the head or the authority over all principality and power. 그러므로 사탄을 하나님과 대등한 대적자 쯤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탄과 하나님은 서로 대등한 경쟁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사탄의 경쟁자요 대적자를 굳이 찾으라면 미가엘이나 가브리엘과 같은 천사장을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 중 가장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모시고 있는 천사들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사탄을 하나님의 반대편 적장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제한된 구역 안에서만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행할 수 있는 한계를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정사와 권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정사와 권세들을 다스리시는 가장 우월한 권위를 가지신 머리이십니다.

> *In whom also ye are circumcised with the circumcision made without hands, in the putting off the body of the sins of the flesh by the circumcision of Christ (2:11):*

Now, there were those, and he's dealing now in this area, he's moved from Gnostics to the Judaisers, those who were teaching that in order to be righteous, faith in Christ was not sufficient. That's good, it's important, it's necessary, but it's not enough. In order for you to be saved, you must also adhere to the law. So you've got to be circumcised and you've got to also keep the law. Faith in Jesus is not enough. That's why Paul said, "You are complete in Him." It is enough. And you have been circumcised, but not the physical circumcision that the law required, but your circumcision is a true circumcision through Jesus Christ. You've renounced the life of the flesh. And here was the tragic error of the Jews that they were counting really on the physical experience and not upon the spiritual. So, though they had physically been circumcised, they were still walking after the flesh. And Paul said that totally negates the physical ritual. The idea is to cut off the life of the flesh, not to live after the flesh. So, Paul said if the Gentiles have turned away from the life of the flesh and are living after the Spirit, even though they may not have had the physical right of circumcision, it is accounted as circumcision, because God is looking at the heart of man. And so Paul here affirms the same truth. The true circumcision is that of the spirit within my heart, when I turn away from the life of the flesh to live after the Spirit through the faith and power of Jesus Christ. I have been circumcised in God's eyes, that is, I have been set apart to live after the Spirit before God. And that's what God counts. 11 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이제 사도 바울은

영지주의에서 유대교 이단으로 넘어갑니다. 유대교 이단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가르쳤습니다. “믿음? 좋지. 중요해. 필요해. 그러나 충분하지 않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준수해야 해. 예수에 대한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온전)하니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하도다. 너희가 할례를 받았으나 그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영적인 할례를 받은 것이니라. 너희는 육적인 삶을 벗어버린 것이니라” 유대인들의 비극적인 오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육적인 것을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육체적인 할례를 받았으나 그들은 여전히 육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육체적인 예식의 의미를 전적으로 부인하였습니다. 예식의 의미는 육적인 삶을 벗어버린다는 것이지 육체를 따라 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방인이 육적인 삶을 버리고 회개하여 영을 따라 살면 비록 그가 육체적인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참된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같은 진리를 또 한번 강조합니다. ‘진정한 할례는 내 마음 속에서 영을 따라 받는 것이다. 이제 육적인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권능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로 결심할 때 그는 진정으로 할례를 받은 것이다.’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할례는 오직 그것 뿐입니다.

The tragic thing about rituals, physical rituals, is that too often people begin to substitute the ritual for the reality. In the ritual of baptism, how many people today are falsely trusting in the ritual of baptism for the reality? The ritual of baptism, as Paul is going to point out here, actually, is death to the old life of the flesh that I might be in the risen Christ, living after the Spirit, and that’s what it means. Now, if I have been sprinkled when I was a child, or I’ve been dunked as an adult and I am still living in the old life, I’m still living after the things of the old life, then the physical ritual means nothing. But, if I, by the Spirit, am living and walking after the Spirit, the new life in Christ. It may be that I was converted out in the Sahara Desert and there wasn’t enough water to dunk me, but that doesn’t negate my salvation or the new life that I am living in Jesus Christ, because it’s of the Spirit. As Peter said, “Now doth baptism save but not the putting off of the filth of the flesh" (1 Peter 3:21). It isn’t the ritual, but it is a heart, the conscience towards God of living and walking really after the Spirit. So,

you were… 사람들은 육체적인 예식을 그것이 의미하는 실재와 혼동하여 대치하여 버리는 비극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라는 예식을 실재라고 믿는 실수를 범하고 있는지요. 세례의 의식은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적인 옛 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부활하여 성령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릴 적에 유아 세례를 받았건, 아니면 성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았건, 내가 여전히 옛 사람을 따라 살고 있다면 그 육체적인 예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면, 비록 사하라 사막에서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을 만한 충분한 물이 없어서 세례의식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받은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새 생명을 무효화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성령이 주시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벧전 3:21) 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살아가는 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2:12-13)*

> *Buried with him in baptism, wherein also you are risen with him through the faith of the operation of God, who hath raised him from the dead. And you, being dead in your sins and the uncircumcision of your flesh, hath he quickened together with him, having forgiving you all trespasses* (2:12–13);

Now Paul ties together these two rituals that both symbolize much the same thing. To the Jew, the ritual was circumcision, which was to be the symbol that I'm going to live after the Spirit not after the flesh. To the Christian, baptism signifies the same thing, the new life after the Spirit, the old life after the flesh, dominated by the flesh is dead. It's buried, and now I'm going to live a new life after the Spirit. And both of the rituals symbolize the same thing. To the Jew it

was circumcision; to the Christian it was baptism. Thus, the truth applies to both; it is not the physical right that does it, it is what has happened in my heart and in reality in my life. So, being dead in your sins, the uncircumcision of your flesh, He has made you alive together with Him, having forgiven you all trespasses. In Ephesians, chapter two, it is the correlating verse here, "And you, having been made alive who were dead in trespasses and sins; for in times past you walked according to the course of this world" (Ephesians 2:1,2).

바울은 사실 서로 같은 것을 상징하고 있는 두 개의 예식을 하나로 묶어 연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예식은 할례입니다. 할례의식은 이제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는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를 따라 살던 옛 사람은 죽었고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어서 묻혔습니다. 이제 나는 성령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삽니다. 두 가지 예식 모두 같은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할례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은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 속에서 일어난 것, 내 삶의 실재 속에서 일어난 일이 중요한 것이지 육체에 생겨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진리가 이 두 가지 의식에 모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죽은 것은 할례받지 못한 육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함께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지나간 날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 장을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았도다"(엡 2:1-2) 라고 하여 그 두 가지를 서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o, the thing I love there, though, having forgiven you all trespasses. Your whole past has been blotted out through your faith in Jesus Christ. Every trespass, every sin has been blotted out as a result of your faith in Him. Not only that, the law which these people were trying to push upon the Colossians, this very…the ordinances of the law, the observances of the Sabbath days, the dietary laws, the types of meat that you can eat, and the various traditions of the Jews as far as the dietary laws, he said that Jesus…

> *Blotting out the handwriting of ordinances that was against us, which was contrary to us, and took it out of the way, nailing it to his cross (2:14);*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다는 부분이 참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도말되었습니다. 모든 허물과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말되어 제하여 진 것입니다. 그 뿐 아니라 이 이단들이 골로새교회에 침투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율법, 안식일 준수와 먹을 수 있는 고기가 무엇인지 정하여 주는 음식관련 규례와 다양한 유대인의 전통들이 모두 도말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느니라 (2:14)

So, Christ is the end of the law to those that believe. The law could never make you righteous. The law could only condemn you. It was contrary to you. It was condemning you. Now, Jesus has blotted out these handwritings of ordinances which were against us. Thus, I am not under law. I am not under a righteousness that is affected by rules and regulations. My righteousness has nothing to do with my actions. My righteousness has to do with my faith. Now, my faith will produce actions. And if I say I have faith and yet my works are not in correspondence with it, then I am making a false boast of faith. But the works always must follow and be the result of faith. And that means that I do not depend upon my works as a righteous basis in my standing before God.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율법은 우리를 절대로 의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율법은 기껏해야 우리를 정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거스립니다. 우리를 정죄합니다.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모두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이제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법도와 규례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그런 의로움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나의 행위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나의 의는 오직 나의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나의 믿음은 행위를 만들어 냅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내 행위가 그 믿음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나는 거짓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행위는 믿음의 결과이며 언제나 믿음을 따라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데 나의 행위가 의로운 기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I don't say, "Well, I'm righteous because I pray so many times a day. I'm more righteous than you, because I read my Bible and you don't." No, I'm not righteous because of what I have done. I am righteous because God has imputed righteousness to my account because I am believing and trusting in Jesus Christ completely. Now, because I am believing and trusting in Jesus Christ, I do want to know Him. And so, I do read the word. Because I do trust in Him and love Him, I do communicate with Him and want to keep in constant communication and in constant fellowship with Him. But that doesn't make me righteous. That is

only the result of the fact that I am righteous through my faith in Jesus. It's important that we distinguish that, vitally important that we distinguish that. Because it is so easy for us to relate our righteousness to our activities and to our works. Now, when I do that, then I am always putting myself in the position of judging others who aren't doing as much as I am doing. And see, that makes me a little better. That makes me a little more righteous and it also puts me in the position of sort of judging, "Well, you know, they just really don't have it." So it's a dangerous place to be. God doesn't want me to be there. "하루에 몇 번씩 오랜 시간 기도를 하므로 나는 의롭다. 나는 너 보다 성경을 많이 읽기 때문에 너보다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행한 일 때문에 의로와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그 분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로움을 전가시켜 주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로와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 분을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 분과 교통하기 원하고 지속적인 교제와 사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더 의로와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열매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행위와 의로움을 연관짓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행위와 의로움을 연관짓게 되면, 내가 행하는 것만큼 행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다른 이들보다 아주 조금 나은 구석을 발견하게 되면 이내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서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들은 왜 그걸 안 하지?" 그 자리는 정말로 위험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But when my righteousness is just through my faith in Christ, I can't boast in my righteousness, nor can I boast in the works that I'm doing. And if you come across someone who is boasting in their efforts, boasting in their sacrifices, boasting in their works, you have a classic example of what I'm dealing with. You see, because God has made righteousness something that He imputes to me through my faith, it totally eliminates boasting, except in Jesus. So, when you get people who are just always talking about how good Jesus is and how wonderful Jesus is and, "Oh, I don't know what I'd do without the Lord. The Lord is so good, He's so blessed me." Then you know that person has really come to a real understanding of what it is to have the righteousness through the faith in Jesus Christ. Cause he's not telling about himself, but he's boasting in the Lord and what the Lord has done.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도, 자신의 행위를 자랑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을 통하여 내 안에 의로움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 밖에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살다보면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너무 멋있어요. " 온통 이런 말 밖에는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주님 없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너무 좋아요. 다 주님의 축복이예요" 이런 말만 하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기독교의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만을 높입니다.

So, Jesus brought an end to the rule that the law had over man. Nailed it to His cross, that's the end of the law. It was a schoolmaster until the time of Christ. When Christ came, law was no more valid. It was up to that point, but He was the end of the law to those who believe. So that no man can be made righteous by keeping the law. You can only be righteous through believing in Jesus Christ.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인간에 대한 율법의 지배에 종점을 찍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마지막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일하던 몽학선생이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율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거기까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율법의 마지막이 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준수함으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하여서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 *And having spoiled the principalities and the powers*, [Now, we read that he had authority over these principalities and powers, and now we're told that he spoiled them or He defeated them and] *he made a show of them openly* [through the cross] *triumphing over them in it* [or in the cross] (2:15).

15 절을 보시겠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전에 우리는 예수께서 정사와 권세들 위에 우월한 권위를 가지고 군림하심을 본 바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벗어버리셨다고 하셨습니다. 무릎꿇게 하셨다, 물리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십자가를 통하여 밝히 드러내시고 승리하셨다고 하였습니다.

So, the cross of Jesus Christ is the place where victory over Satan was complete. Now, Satan so often has the tables turned on him; he's not omniscient, he doesn't know all things, and he falls into the trap so many times. God just

turns the tables on him. As with Joseph and his brothers who conspired to sell him as a slave to Egypt. You know, to send him down to Egypt and being sold as a slave. And later, when Joseph came to the Pharaoh and interpreted the dream and was placed by the Pharaoh as the head over Egypt. And then his brothers came down to by grain and all. And when they finally realized that it was their brother who they betrayed who they were dealing with, they had great fear, and they said, “Oh man, we’ve had it. This guy’s going to get us.” He said, “Now look, don’t be afraid that I’m going to take vengeance on you guys. I know that you meant it for evil, but God intended it for good.” And so often God will take those evil intents of Satan, and turn them around for good. See, he’s always getting the tables turned on him and you’d think he’d get discouraged after a while. He follows this plot along and thinks, "Ah ha, I’ve got it all set up." And then flip, God turns the tables, and instead of coming out on top, he comes out on the bottom.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탄에 대한 온전한 승리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이제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사탄은 전지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는 너무나 자주 함정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역전시키신 것입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를 애굽에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후에 요셉이 바로 앞에 나와 꿈을 해석해 보였고, 바로는 그를 애굽 총리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곡식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오게 되고, 그들은 결국 자기들이 마주하고 있는 애굽 총리가 자신들이 배신하여 팔아넘겼던 동생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어마어마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끝장났어. 요셉이 우리를 죽여버릴꺼야.” 그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들에게 복수를 할까봐 두려워 마소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악한 계교를 취하셔서 그것을 선하게 바꾸어 버리십니다. 언제나 그렇게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보면서 사탄은 잠시 동안 기가 꺽여버립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또다른 계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이번에는 완벽하게 성공하겠지” 그러나 또 다시 뒤집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역전시키신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밟고 올라서기는커녕 발등상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Haman, determined he was going to destroy the Jews, was going to get rid of them once and for all. And after this mortifying experience where the very man who prompted all of his anger against the Jews, he was forced by the King to give him a position of honor. Had to go through the streets in front of him in a chariot and say, “This is the man that the King wants to honor.” Oh, how the

Lord turns the tables on old Haman. And so, he built the gallows, ninety feet high so that the whole city could see Mordecai hanging, I mean, going to kill all the Jews but I've got a special spot for this Mordecai. I'll let him swing from a ninety foot gallow where everybody will see it. And he got hung on his own gallow; so often happens that way.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도 유대인을 몰살시켜버릴 궤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날 한 시에 모든 유대인들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모르드개로부터 굴욕을 당한 이후 하만은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지만 오히려 그는 왕으로부터 모르드개에게 영예를 주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는 거리로 나가 마차를 탄 모르드개 앞에서 " 이는 왕이 영광을 내리는 사람이니라 " 고 외쳐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활한 하만 앞에서 상황을 역전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하만은 90 피트나 되는 높은 교수대 기둥을 세웁니다. 온 도시로 하여금 모르드개가 달리는 것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한 계획을 세웠지만 특별히 모르드개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90 피트짜리 높은 교수대에 모르드개를 달아버려야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말이야. 그러나 그는 결국 자신이 교수대에 달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그와 같습니다.

Satan, bringing Jesus to the cross, raising up the people against Him, but it was at the cross where Jesus defeated him. For the law had a claim on us because we had violated the law and thus, we had to die. Satan had a claim on us because we had served Satan, and the wages of serving Satan is death, but Jesus redeemed us from the curse of the law. He redeemed us from the power of Satan. He purchased us. Where? At the cross. There He paid the price, because He died in our place. And so, He spoiled the principalities and powers. He triumphed over them there in the cross. The cross is the open display of the victory of Jesus.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어왔으며 사람들을 꼬드겨서 주님을 대적하도록 만들었지만, 예수께서 사탄을 이기신 곳은 바로 그 십자가였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만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탄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사탄을 섬긴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분은 우리를 값 주고 사셨습니다. 어디서요? 바로 십자가에서 입니다. 거기서 주님은 값을 치루셨습니다. 그 분이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정사와 권세들을 벗어버리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밟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승리가 밝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Let no man therefore judge you in meat, or in drink, or in respect of a holyday, or of the new moon, or of the sabbath days (2:16):

Now, these were all things under the law. They weren't to eat certain kind of meats. They were to prepare the meat in special ways that they did eat. They had certain holy days. They had the Sabbath of the new moons. And then they had the Sabbath days. And Paul is saying, "Don't let anybody judge you in these things." They no longer apply to me in my relationship with God. My relationship with God is not enhanced by my keeping a particular diet. I can't by diet make myself more righteous. "Oh, you eat pork? Oh, shame on you. I would never eat pork." And as though that would make me more righteous, you see. So, today we find people that are judging us in meat, or in drink, or in respect to a holy day or Sabbath days. 16 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이런 것들은 율법적인 행위들이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던 유대인들은 어떤 특별한 고기들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먹을 수 있는 고기들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손질을 하여 준비한 것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켜야 하는 특별한 절기가 있었습니다. 월삭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도 이런 것들로 인하여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특별한 음식법을 지킨다고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법을 지켜서 더 의로와지는 것도 아닙니다.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부끄러운 줄 알아라. 난 돼지고기는 절대 안 먹어"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의롭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기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안식일의 문제로 우리를 판단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Now, these holy days, these Sabbath days, these offerings that were made, were all a shadow of things to come. They weren't reality. They were only a shadow. They were foreshadowing things to come. The real substance is Jesus, the body; the substance is of Christ. These things only foreshadowed. So, the Sabbath day was only a foreshadowing of the rest that we have in Jesus Christ. He is our Sabbath; He is our rest. So it really makes no difference if we gather on Sunday, the first day of the week to worship Him or we would gather on a Saturday to worship Him, immaterial. The idea of the Sabbath day was to show God's rest for His people, but that was only the foreshadowing of the real rest that we have in and through Jesus Christ. So, all of these things within the law only foreshadowed what was accomplished by Jesus. And the law is important

for us to study only to understand completely what Jesus has done for us in His sacrifice for our sins. 그러나 절기들이나 안식일이나 또는 제물들은 모두 다가올 것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은 참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다가올 것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참된 실재는 예수님이십니다. 몸, 즉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율법의 일들은 오직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안식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안식일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안식이십니다. 우리가 일요일에 모여 주일예배를 드리건, 아니면 월요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건, 또는 토요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건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보여주기 위하여 고안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안식이 이제 임하였으니 그것은 이제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안의 그 모든 것들은 예수 안에서 성취된 것들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율법은 오직 예수께서 그의 희생을 통하여 행하신 일들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하여 공부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 *Let no man beguile you of your reward in a voluntary humility in the worshipping of angels, intruding into those things which he hath not seen, vainly puffed up by his fleshly mind* (2:18),

Now, there are those who would say, "Well, now, you don't want to bother God with all your little things. Or God may not be interested in listening to you, so it might be wise… There's this particular saint who lived in this area, and it might be wiser if you would pray to him to intercede for you. Because surely God loves him. He was such a holy man, and God loves him, and he'll listen to him. So you pray to the saint and have the saint intercede, because you really shouldn't come to God with that yourself. You know, you're sort of on the outs, and so get someone who's on the in, and let him intercede for you." Let no man beguile you of the reward in voluntary humility, the worshipping of angels or the worshipping of the saints. As they intrude into those things which they have not seen. It's all just a part of the vanity of a puffed up mind. 18 절입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좇아 헛되이 과장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천상에 살고 있는 특별한 성인에게 기도하고 그가 당신을 대신하여 중보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는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는 것은 들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에게 기도하여 그가 당신을 위하여 중보하도록 하라. 당신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된다. 당신은 주변부의 별 볼일 없는 사람이니 하나님 측근의 끝발있는 사람에게 중보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해야 한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와 성인을 숭배하는 것을 인하여 너희를 호도하지 말도록 하라." 그들은 자신들이 보지 못한 것을 강요합니다. 그것은 우쭐대는 마음이 부리는 허영의 일부분입니다. 헛된 과장입니다.

> *And not holding the Head, from which all the body by the joints and bands having nourishment ministered, and knit together, increaseth with the increase of God* (2:19).

We can each of us hold onto Jesus Christ and receive our strength and our nourishment directly from Him. "There is only one God, and one mediator between God and man, the man Christ Jesus" (1 Timothy 2:5). And Mary cannot mediate for you, nor can any of the saints mediate for you. Nor can any of the angels mediate for you. One God and one mediator, and Jesus Christ is that mediator. Jesus said,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and no man can come to the Father but by me" (John 14:6). You can't come to the Father through the saints. And of course, you take it one more step: go to Mary to talk to her son to talk to her father. But know you can come directly to the Father through Jesus Christ who is our mediator. "Therefore, let us come boldly to the throne of grace that we might receive mercy in the time of need" (Hebrews 4:16). I don't have to go through a chain of command. Jesus has opened the door directly to God's throne for you and for me. We've become the children of God. And one thing about children, they have access always to the Father. 19 절을 보시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 각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분으로부터 힘을 받고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딤전 2:5) 마리아도 그 어떤 성인들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중보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중보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 장 6 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성인들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를 통해서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한 술 더 뜹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예수는 마리아의 말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 장 16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휘서열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로 직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의 특권은 아버지께로 언제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Interesting, you know, because of our schedule it's just not easy to see everybody. And a lot of times people come in and we're so piled high with work that it's hard to take time to see them, but you know, there's the little kids around here that come an' knock on the door and say, "Grandpa!" And immediately the door is opened and there's always, it seems, time. They have access because of relationship. And that's the neat thing about God, your relationship, there's always access. The door is always open. You can come always. So, this is a false humility. Don't let anybody beguile you as to the advantages of it. There are no advantages to it. 바쁜 스케쥴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만나러 옵니다만,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다 만나지를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 제 손자 녀석이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어린 아이는 선약없이 와서 제 사무실 방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문이 즉시로 열립니다. 언제나 그 아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납니다. 손자녀석과 저와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언제나 나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와 같은 축복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 뿐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은 언제나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이나 마리아나 다른 중보자를 의지하는 것은 거짓된 겸손입니다. 아무도 이런 것들로 여러분을 이용해 먹지 못하도록 하십시요. 거기에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 *Wherefore if you be dead with Christ from the rudiments of the world, why, as though living in the world, are you subject to ordinances, (Touch not; taste not; handle not; which all are to perish with the using;) after the commandments and the doctrines of men?* (2:20-22)

Now, this life of asceticism which the Gnostics lived as though it made them more spiritual. You know, if you want to really be spiritual then you'd better go find a little eight by eight cubicle and lock yourself in, and lock the world out, and just sit there and read your Bible all day long and sing hymns unto God, and live within that cubicle. Oh, then you'll be very holy and very

righteous. No. These things may… Fast all the time. Don't eat this! Don't eat that! Don't touch this! Don't touch that!

> 20 절부터 23 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좇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영지주의자들은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보다 영적인 사람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진정 영적인 삶을 살기 원한다면, 산 속에 좁은 오두막을 짓고 거기다 자신을 가두어 놓은 후 세상과 자신을 단절시키고 거기 앉아서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을 자주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먹지 말라. 저것도 먹지 말라. 이것을 만지자 말라. 저것도 만지지 말라!

These may show some wisdom in discipline of the body and in humility as you are disciplining or neglecting the body. But in reality, they do not honor God but they only glorify the flesh or satisfy the flesh. In other words, my flesh might be very satisfied in a thirty-day fast, that now I've really proved that I have mastered over my body and all, but really, then I am glorying in what I have done and it doesn't really honored God. Maybe some wisdom in the discipline, but it only brings satisfaction to the flesh; it doesn't honor God.

육체를 다스리고 부정하는 겸손의 훈련을 통하여 어떤 지혜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육체를 영광스럽게 하고 육체를 만족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30 일 금식을 통하여 오히려 나의 육체가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아라. 내가 나의 육체를 다스렸지 않느냐" 그러나 실제로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행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금욕의 훈련을 통해 몇 가지 지혜를 얻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만족시키는 일이 될 뿐입니다.

Chapter 3

So then,

If then you are risen with Christ [If you are risen with Christ… going back to buried with Christ in baptism, now risen with Him], *seek those things which are above, where Christ sitteth at the right hand of God* (3:1).

You're not really bound to these things of the world, the rudiments of the world. You're not under the laws: touch not, handle not, taste not. You've risen with Christ. You're living in a new dimension of life, the spiritual dimension of life. And you should be seeking those things which are above where Christ is sitting on the right hand of God.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엣 것을 찾으라 !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3:1)

우리는 진정 세상의 것들에 매여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만지지도 말라, 움직이지 말라, 맛보지 말라는 율법의 명령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차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는 위엣 것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Set your affection on things above, not on things on the earth. For you are dead, and your life is hid with Christ in God (3:2–3).

Now, again, my life is the reflection of what I am and what I believe. And it doesn't mean that Paul is giving these people a license to live after the flesh. It doesn't mean that he's saying it doesn't matter how you live. What he is saying, that these aren't the things that make you righteous. And you shouldn't be living in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God under the law; you should be living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God, seeking the things which are spiritual, seeking and pursuing those things that are above. Setting your affections on things above, not on these things on the earth. For really you are dead to them, and that's the principal he is teaching.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thus I am dead to the flesh and to the things of the flesh and to the life of the flesh; I should not be living after the flesh. For you are dead and your life is hid with Christ in God. That's where I am now living in Christ, in God. And, "위엣 것을 생각하고, 땅엣 것을 생각지 말라 !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었음이니라" 나의 삶은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반영합니다. 바울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허가증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만 중요하고 어떻게 사는지는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과 부정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긍정적인 관계 속에서 위엣 것들,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위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의 것들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육체의 일과 육체적인 삶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었고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 *When Christ, who is our life,* [Now, you see this is the key to it right here. Can you say that Christ is my life? As Paul said, "For me to live is Christ," and I love this powerful statement.] *When Christ, who is our life, shall appear, then shall ye also appear with him in glory* (3:4).

Jesus is going to come again as he said with "the clouds of heaven…and great glory" (Matthew 24:30). "Behold, He cometh…every eye shall see Him" (Revelation 1:7). "Ye men of Galilee, why stand ye gazing here into heaven, this same Jesus is going to come again" (Acts 1:11). And when Christ who is our life shall appear, we shall appear with Him in glory. Oh, but how important that we are able to say, "Christ who is my life." That my life be so completely bound up and centered in Christ that He is my life. Christ who is my life. I love it. 3 장 4 절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미리 말씀하신대로 "구름을 타고 영광가운데"(마 24:30) 다시 오실 것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계 1:7)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행 1:11)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십니까?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니"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나의 생명은 온전하게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으며 묶여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시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 *Mortify* [or put to death] *therefore your members which are upon the earth* [that is the members of your body, those body desires put them to death]; *fornication, uncleanness, inordinate affection, evil concupiscence, and covetousness, which is idolatry: For which things' sake the wrath of God cometh on the children of disobedience* (3:5–6):

Now, as Paul is writing to the Ephesians, he tells them much the same things, that for these things the wrath of God is coming upon the earth. Therefore, we should not be guilty of these things. "Know this," he said, "no whoremongers, nor unclean person, nor covetous man who is an idolater has any inheritance in the kingdom of Christ and God. Let no man deceive you with vain words for because of these things the wrath of God is coming on the children of disobedience" (Ephesians 5:5,6). As he was writing to the Galatians and was listing the works of the flesh, he said, "That we know that those who do these things shall not inherit the kingdom of heaven" (Galatians 5:21). In Romans one he says, "For the wrath of God is going to be revealed against all ungodliness and unrighteousness of men who hold the truth of God in unrighteousness" (Romans 1:18). And then, as he gives this long list of things, parallel list here, he said that, "They which do such things are deserving death" (Romans 1:32).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3:5-6)

이제 바울은 에베소서에 쓴 것과 같은 내용의 권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녕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엡 5:5-6)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 5:21) 로마서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좇아 나타나나니"(롬 1:18)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의 육체의 일들 목록과 병행되는 목록을 다시 한번 열거하고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느니라"(롬 1:32) 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So don't be deceived; don't let men deceive you. You cannot live after your flesh and inherit the kingdom of God. The very fact that I have accepted

Jesus Christ, the whole concept is that I have renounced the life of the flesh. I'm dead to the flesh that I might be alive unto God in Christ, living after the Spirit. And if I am still living after my flesh, the ritual of baptism is not only negated, but all that I might say is also negated. John said, "If a man says he loves God and yet hates his brother, he is a liar" (John 4:20). "The truth isn't in him" (John 2:4). If a man says he abides in Christ then he ought to be walking as Christ walked. In other words, it's not what you say which really counts; it's how you're walking that counts. And so, are you walking after the Spirit? Have you renounced these hidden things of the world? Have you mortified the deeds of the flesh? For don't be deceived, if you are living after the flesh, you are not an heir of the kingdom of God. It is a spiritual kingdom for those who are living and walking after the Spirit, regardless of what you may say or affirm to be so. They that do such things shall 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And so he lists these things and he says, "Look, the wrath of God is coming upon the earth because of these things. Don't presume upon the grace of God." The children of Israel made a tragic mistake thinking, "Well, we are God's chosen people, and we can live like the nations around us." You can't. You must live as God's people. Mortify, therefore, those fleshly things, 그러므로 속지 마십시요.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요. 육체를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이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겠다고 공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영을 따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육체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산다면 세례만 무효화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효화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요일 4:20) "진리가 그 속에 없느니라"(요일 2:4)고 하였습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자기도 행하여야 합니다.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은밀한 일들과 절교하셨습니까? 육체의 일들을 멸시하며 살고 계십니까? 속지 마십시요.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건 간에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뻔뻔스럽게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이니까 주변 나라 사람들처럼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비극적인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육체의 일들을 멸시하며 사십시요.

In the which you also walked sometime, when you lived in them. But now ye also put off all of these; [not just these more overt sins of the flesh, but put these off too, put off] *anger, wrath, malice, blasphemy, filthy communication out of your mouth. Lie not one to another, seeing that ye have put off the old man with his deeds; and have put on the new man, which is renewed in knowledge after the image of him that created him* (3:7-10):

So we should be as John says, walking as Jesus walked. He is our example; He is the image into which the Spirit of God is seeking to conform our lives. And so put off the old man, and put on the new.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훼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3:7-10) 단지 공공연하게 육체의 죄를 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하여야 합니다. 예수께서 바로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성령께서 바로 그 분의 형상을 닮도록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요.

Where there is neither Greek nor Jew, circumcision nor uncircumcision, Barbarian, Scythian, bond nor free: but Christ is all, and in all (3:11).

We don't have distinctions in Jesus Christ, religious, ethnic or whatever; Christ is everything. He is all, and He is in all. There is not rich or poor, there is not favored and special class; we are just all one.

Put on therefore, as the elect of God, holy and beloved, [now, you put on Jesus Christ, you put off these things, put off anger, wrath, and malice and instead, put on] *bowels of mercies, kindness, humbleness of mind, meekness, long-suffering; forbearing one another, and forgiving one another, and if any man have a quarrel against any: even as Christ forgave you, so also do ye. And above all these things put on charity* [love], *which is the bond of perfectness* [completeness] (3:12-14).

So, not only am I to just put off the works of the flesh, the old life, I am to put on Jesus Christ, living after Him.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3:11)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교적, 인종적인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 분은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그 분 안에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습니다. 특별하게 사랑받는 특별한 계급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누가 뉘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3:12-14)

우리는 육체의 일들, 옛 생활을 벗어버리는 것에 그쳐서는 안되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 분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 *And let the peace of God rule in your hearts, to which also ye are called in one body; and be thankful* (3:15).

So, we're called to thanksgiving; we're called to the peace of God. And then, verse sixteen:

> *Let the word of Christ dwell in you richly in all wisdom*; [And that's why we're here tonight. That the word of Christ might dwell in our hearts richly. That we might teach and admonish one another.] *teaching and admonishing one another in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singing with grace in your hearts to the Lord. And whatsoever ye do in word or deed, do all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giving thanks to God and the Father by him. Wives, submit yourselves unto your own husbands, as it is fit in the Lord* (3:16-18).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3:15)

우리는 감사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6 절부터 18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3:16-18)

Now, as we had mentioned when we were going though Ephesians, God gave very simple rules for marriage. Two rules: one for the wife, one for the husband. And if we'll follow these rules we can have a very happy marriage and a happy relationship. But if we violate these rules, we're going to bring misery into our marriage. The rule for the wife: submit yourself unto your own husband. To the husband: love your wife, be not bitter against them. So the husband is to love his wife as Christ loved the church. The wife is to submit to the husband. These two are tied together. God knows that the greatest need that the woman has is to know that she is loved, that she is loved supremely.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간단한 결혼생활의 법칙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아내를 위한 법칙이고 다른 하나는 남편을 위한 법칙입니다. 이 두 가지 법칙을 잘 따르면 행복한 결혼생활과 행복한 부부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칙을 위반하게 되면 결혼생활은 비참함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아내를 위한 법칙은 이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한 법칙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비통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여야 합니다. 이 두 법칙이 서로 묶여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사랑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자는 세상에서 소중한 존재로 사랑받는 것을 원합니다.

When she knows she is loved supremely, she is secure, and she feels that security, and thus anything my man does is all right. Then she finds it easy to submit to him, because she knows that he loves her supremely. And as she says, "Well, honey, whatever you want." God knows that the greatest need a man has is to be macho, to feel he's in control. And to challenge that is to court problems. But to play up to that is to open the door for all kinds of demonstrations of love. "Oh, my little sweet heart. Man, what can I do for her today; she's such a doll.

She trusts my judgment; she trusts my wisdom. How can I show her how much I appreciate her and love her?" So, as the wife submits, the husband finds it easy to show his love. As she rebels, then he's got to show that he's macho. "I don't need you; I don't need anybody. I'm able to handle. I'm macho. I can do what I want." And so he becomes cold. And as he becomes cold, then she feels all the more insecure and she has to challenge all the more. "This creep! I don't know if he loves me or not. Think what he wants to do is stupid. We have to loose everything, and then he is going to take off. I know he is, because I don't know if he loves me or not." So you feel like you've got to challenge everything. "Are you sure? Do you really know what you're doing?" Macho, "I know what I'm doing. Leave me alone." He gets cold. 자신이 소중한 존재로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여자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남편이 하는 모든 일이 좋게 보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자기를 소중하게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뭐든지 원하는대로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남성이 가진 가장 큰 욕구를 알고 계십니다. 남자는 마초맨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상황을 지배하고 싶어합니다. 남편의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되면 만사가 싸움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남편의 권위에 맞추어주면 남편으로부터 모든 종류의 사랑의 표현이 나옵니다. " 오 나의 사랑스러운 자기야. 오늘 내가 뭘 해 줄까? 당신은 정말 인형같아. 나의 판단을 믿어주고 내 지혜를 믿어주지. 내가 얼마나 고마워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 여자가 복종하게 되면 이렇게 남편은 여자를 사랑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나 여자가 복종치 않으면 남자는 자기가 집안의 왕인 것을 보여주려고 나서게 됩니다. "당신! 조용히 해! 다 필요없어.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내가 이 집안의 주인이란 말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 그리고 남자는 차가와 집니다. 그러면 여자는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전보다 더 남자에게 대들게 됩니다. "이 혐오스러운 인간! 그이가 날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이가 하자는 것은 모두 멍청하게만 느껴지네. 우리는 모든 걸 다 잃고 그이는 날 떠나 버릴꺼야. 날 알아. 왜냐하면 난 그이가 날 사랑하는지 않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야 ." 여자가 이렇게 느낄 때, 여자는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거 확실해요, 여보?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알아!. 내가 알아서 다 잘하고 있어. 날 좀 내버려 둬." 남자는 더 차가와 집니다.

Two rules: wives submit, husbands love. Then you have a happy relationship. Because the wife feels the love and the security and she knows, "Hey, he's my man." And the husband, he feels so macho, "Hey, she's my little gal; she's trusting me to do the right thing." And it's beautiful. It's heaven on earth. Simple, isn't it? "Well," you say, "and it would be simple if my husband really knew what he was doing." But she says, "It would be simple if he really loved me, liked Jesus loved the church." Now,

>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all things: for this is well pleasing unto the Lord (3:20).*

When we were going through Epeshians, he said,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for this is right." And we do recognize that the highest authority in our life is God. And we, the presumption here, is that the parents are Christians and are seeking the spiritual welfare of the child. If the parents are not Christians and are demanding the child do something that would be a violation, if he's conscience before God, then we must obey God rather than man. But assuming that the parents love the Lord and you have a Christian home,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all things; this is well pleasing unto the Lord.

두 가지 법칙입니다. 여자는 복종하고 남자는 사랑하고. 그러면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사랑과 안정감을 느끼게 되면 "이 사람은 정말 내 남편이야"라고 말하게 됩니다. 남편이 자신이 집안의 왕임을 느끼게 되면 "이 여자는 정말 내 사랑스러운 아내야. 내가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믿어주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상낙원이 따로 없습니다. 간단하죠? 어떤 분은 "글쎄요. 내 남편이 정말 좀 제대로 한다면 그렇게 간단해 질텐데 말이죠. 남편이 먼저 저를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 준다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먼저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다음, 3 장 20 절입니다.

"자녀들아 !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옳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가장 높은 권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정하고 있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가 영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크리스챤 부모의 모습입니다. 만일 부모가 크리스챤이 아니고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강요한다면 자녀는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챤 부모에게 자녀는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일입니다.

Fathers, provoke not your children to anger, lest they be discouraged (3:21).

And, *to anger*, is not in the original text. You notice it's in italics. It's just, "Fathers, provoke not your children, lest they be discouraged." It's easy to discourage the child through unreasonable demands. Isn't it interesting how we want to make sure that our children don't make the same mistakes that we made. How we want them to be better than we were. We don't want them to goof off and get mediocre grades in school. We want them to get all A's. And sometimes, we are guilty of pushing our children with unreasonable demands, and what it does cause is discouragement on their part. Make sure that we're not making unreasonable demands upon them, taking away their humanness, causing discouragement. And so, don't provoke your children so that they get discouraged. Actually, I have seen something that I think is a terrible evil. And that is, I've seen fathers sometimes tease their little babies until the baby screams in frustration. "Here, you want this candy? Ha, ha. Here the candy, ha, ha, ha, ha." And they keep teasing the child, pulling it away until the child just looses control and screams, and then, isn't that funny and then hands them the candy. Don't do that. Don't provoke your children. That's not a wise thing to do. You're not teaching them when you do things like that.

"아비들아 ! 너희 자녀를 격노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3:21)

격노케 말지니라는 말은 사실 원문에는 없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성경으로 보면 그 부분이 이탤릭체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부모들의 비합리적인 강요로 인하여 자녀들이 낙심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망치기를 바라지 않고 학교성적이 좋기를 기대합니다. 전 과목 우등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과도하게 밀어부치는 잘못을 범합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지나친 요구들로 인하여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지나친 강요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낙심치 않도록 그들을 화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몹쓸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애기야! 사탕먹고 싶어? 여깄다. 잡아봐라. 메롱. 여깄다 잡아봐라.”면서 아기를 가지고 놀리면서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를 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결국 사탕을 넘겨 줍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요. 자녀를 화나게하지 마십시요. 현명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 *Servants* [or employees], *obey in all things your masters* [bosses] *according to the flesh; not with eyeservice, as menpleasers; but in singleness of heart, fearing God: And whatsoever ye do, do it heartily, as to the Lord, and not unto men (3:22–23);*

Oh, that you could have employees like that, that are doing things as unto the Lord. They do it heartily; they do it with joyfulness. They do it with a great spirit. Not to be a man pleaser, "Oh, the boss is coming. Look busy." But doing it as unto the Lord,

> *Knowing that of the Lord ye shall receive the reward of the inheritance: for ye serve* [are a servant of] *the Lord Christ* (3:24).

22 절-23 절을 보시겠습니다.

“종들아(종업원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직장 상사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3:22-23)

주께 하듯 일하는 종업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일하십시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일하십시요. 영혼을 다하여 일하십시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요. 그런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 저기 사장님 오신다. 빨리 일하는 척 하자” 그러나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Now, you may be making your living by working there at that office, or factory, or wherever. That may be putting bread on the table, but your life really is bound up in Jesus Christ. You’re His servant. You’re called to serve Him. Now you make your living over here. But, even in making your living, if you will do things heartily as unto the Lord, it will open up many opportunities for you to witness. People will say, “How is it that on Monday you can be so happy; you’re whistling. Man, my head aches so bad I can hardly see. You seem to have such a good attitude. Boy, if he’d told me that, I would’ve just really said, 'Hey you take

this job, man and stuff it.' You had such a good attitude. And you just went ahead and did it. How is it?" Hey, it opens up so many opportunities to witness for you. Do it as unto the Lord, you're the Lord's servant. He's watching.

> *But he that doeth wrong shall receive for the wrong which he has done: and there is no respect of persons (3:25).*

그런 자세로 직장에서 일하면서 그저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요. 우리는 그의 종입니다. 우리는 그 분을 섬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 직장에서 그저 일하면서 먹고 살 수도 있지만, 만일 여러분이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하여 일을 한다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여러분 앞에 열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이! 김대리. 월요일인데 뭘 그리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나? 휘파람까지 불고 있네? 난 앞으로 일주일 일할 생각하니 두통이 오는데, 김대리 자네는 참 기분좋게 회사에 나와 일하는구먼. 우리 사장이 나 보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난 '니가 직접 해 봐라'라고 말하고 싶을 텐데, 자네는 정말 기분 좋게 받아들이면서 일을 하는 구만. 어떻게 그렇게 일할 수 있지?" 그러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주께 하듯 일하십시요. 여러분은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 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3:25)

Chapter 3

> *Masters, give unto your servants that which is just and equal* [pay them a decent salary]; *knowing that ye also have a Master in heaven. Continue in prayer, and watch in the same with thanksgiving* (4:1–4:2);

As we said, prayer has many parts and an important part of prayer is praise and worship, thanksgiving. A minor part of prayer is request, petitions. But then Paul says, "Pray for us." And, of course, in each of the churches he requested prayer, and I think that every minister feels his need of prayer. Pray for us. And Paul desired that they would pray.

> *Withal praying for us, that God would open unto us a door of utterance, to speak the mystery of Christ, for which I am also in bonds* (4:3):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4:1-2)

기도는 여러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기도의 부분은 찬양과 경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간구하고 요청하는 기도가 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교회에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중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이와 같이 기도해 주기를 소원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4:3)

Here I'm in prison because of my preaching, but pray that God will give me an open door here, even to declare the glorious truth of Christ.

> *That I may make it manifest, as I ought to speak. Walk in wisdom* [The exhortations: continue in prayer, watch the same with thanksgiving, pray for us] *toward them that are without* [That is towards those in the world, walk in wisdom toward them], *redeeming the time* (4:4-5).

Don't waste time; we don't have that much time. Take advantage of every opportunity that God gives you. Redeem the time.

> *Let your speech be always be with grace, seasoned with salt, that ye may know how ye ought to answer every man* (4:6).

지금 나는 전도하는 일로 인하여 감옥에 매였노라.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여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진리를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4:4)

5 절을 보시겠습니다.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4:5)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많은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회를 이용하십시요. 세월을 아끼십시요.

6 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루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4:6)

Peter said, "Be ready to give unto every man a reason for the hope that you have within you. That you might be able to answer men" (1 Peter 3:15). And

so your speech always with grace. God help us, to bring this tongue under control. Now,

> *All of my state* [or how I am doing] *shall Tychicus declare unto you* [will tell you], *who is a beloved brother, and a faithful minister and fellow servant in the Lord* (4:7):

베드로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벧전 3:15) 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말을 은혜롭게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를 주장하사 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자, 이제 7 절을 보시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군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4:7)

두기고는 이 서신을 골로새 교회에 전하여 준 사람입니다. 바울은 현재 로마감옥에 갖혀 있는 상태에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동시에 작성하였습니다. 두기고가 그 두 서신을 전달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도 동시에 작성하였다고 하는데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이 쓴 서신을 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읽어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두기고를 두고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군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호칭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겠습니다.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군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 *Whom I have sent unto you for the same purpose, that he might know your estate* [he might tell you how I'm doing, and that he might find out how you're doing], *and comfort your hearts; With Onesimus, a faithful and beloved brother* (4:8–9),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4:8-9)

Now, this probably is Onesimus for which the book of Philemon was written: the runaway slave who ran away from Philemon, who met Paul in Rome

and received Jesus Christ, who Paul was sending back to Philemon with a personal letter, from Paul to Philemon, begging Philemon's forgiveness and begging Philemon to set Onesimus free from his slavery. 여기서 말하는 오네시모라 함은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를 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바울은 빌레몬의 용서와 또한 오네시모의 자유를 탄원하는 친서를 써 주어 그를 다시 빌레몬에게로 보냈습니다.

> *With Onesimus, a faithful and beloved brother, who is one of you. They shall make known unto you all things which are done here* [the Lord is doing here]. *Aristarchus my fellow prisoner saluteth you, and Marcus, sister's son to Barnabas* (4:9–10),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매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4:10)

Barnabas, of course, was the first companion with Paul on the first missionary journey. He was the one who went to Tarsus and found Paul after Paul's conversion. And going back to Tarsus for several years, Barnabas came and found him when there was a need in the church of Antioch for someone who really understood the Greek culture to come and minister to the Gentiles, and got Paul involved in the ministry, went with Paul in the first missionary journey. And Mark went with them on the first journey but got frightened and came home, and so when Barnabas wanted to take his nephew (it was his sister's son), wanted to take him on the second journey, Paul said, "No way." And the contention between Paul and Barnabas came so great that Barnabas took Mark and went. And Paul took Silas and went another direction. So now, this same Mark that Paul didn't want to go on the second missionary journey is with Paul there in Rome and he is greeting with Paul the church. And Paul, is saying, "If he comes to you, receive him."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1 차 선교여행을 같이 했던 그 바나바를 말합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회심 이후 바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안디옥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바나바는 헬라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바울이 이방인 사역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이방인 크리스챤들이 많이 있었던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동역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1 차 선교여행에 동행하였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도 1 차 선교여행에 동참을 하였지만 선교여행의 힘겨움에 질려 그만 중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후에 2 차선교여행 때 마가를 다시 데려가려고 하였을 때 바울은 극력 반대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간에 다툼이 커지게 되어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독자적인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른 길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었구요. 바울이 2 차 선교여행 때 데려가지 않으려 했던 그 마가가 이제 바울과 로마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가가 바울과 함께 골로새 교회에 문안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고 말합니다.

And Jesus, which is called Justus (4:11),

Jesus was a common name in those days. That's why He was usually called, Jesus of Nazareth to distinguish Him from all the other little boys that were named Jesus. It is the Hebrew name for Joshua or Yeshua, and so, the Hebrew is Yeshua; the Greek is Jesus. And so, here's another one in the Bible called Jesus, which is called Justus.

who are of the circumcision [or they are Jews]. *These only are my fellow workers unto the kingdom of God, which have been a comfort unto me. Epaphras, who is one of you* (4:11-12),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4:11)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다른 예수들과 혼동되지 않도록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우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 또는 예슈아라는 히브리 이름의 헬라식 표기입니다. 유스도라고 불리우는 또 다른 예수는 골로새 교회에서 사역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의 사정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Epaphras, who is one of you, a servant of Christ, saluteth [is greeting you], *always laboring fervently for you in prayers* (4:12),

I love this. Epaphras was there in Rome with Paul, but he was always praying for those in Colosse. Laboring for you in prayer, or laboring fervently, the Bible says, "The effectual, fervent prayers of a righteous man avails much" (James 5:16). And here's Epaphras, their minister, though he's away from them fervently praying for them. What is he praying:

that ye may stand perfect and complete in all the will of God (4:12).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4:12)

에바브라는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항상 애써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적으로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 □□□ □□□□ □□ □□□□"(약 5:16)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였던 에바브라는 , 비록 현재는 교우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골로새 교우들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애써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내용은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4:13)이었습니다.

John said, "I have no greater joy than to hear that my children are walking in truth" (3 John 1:4). It's a very discouraging thing if you go away from a church and you hear the whole thing's gone to pieces. Fractured. But to go away and years later to hear, "Oh, they're walking in truth; they're going on with the Lord." No greater joy. And here's Epaphras praying that they might really walk perfect and complete in the will of God.

> *For I bear him record, that he hath a great zeal for you, and* [for] *them that are in Laodicea, and them in Hierapolis*. [These three cities that were close in proximity to each other.] *Luke, the beloved physician, and Demas, greet you* (4:13–14).

요한은 "□□ □ □□□□ □□ □□□ □□□ □□ □□ □□□ □ □□□□ □□□"(요삼 1:4)라고 하였습니다. 목회하던 교회를 멀리 떠나있던 중에, 교회가 산산조각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으니 얼마나 낙심스러웠을까요? 그러다가 후에 그들이 이제는 진리 안에서 행하며 주와 함께 동행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그보다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있게 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4:13-14)

Luke, who, of course, was Paul's companion in much of Paul's journeys, the beloved physician, the one who wrote the gospel and the book of Acts. Demas… Now later, Paul is to speak of Demas in his epistle to Timothy,

"Tragically Demas has forsaken me, having loved the present world more than the things of God." But here, he joins in the greeting to the church.

> *Salute* [greet] *the brethren which are in Laodicea, and Nymphas, and the church which is in his house. And when this epistle is read among you, cause that it be read also in the church of the Laodiceans* [in other words, after you've read it, send it over to Laodicea]; *and that ye likewise read the epistle from Laodicea. And say to Archippus, Take heed to the ministry which thou hath received in the Lord, that thou fulfill it* (4:15-17).

누가는 두말 할 것 없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 대부분 동안의 동행자였고, 사랑받는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때만 해도 골로새 교회에 안부를 전하고 있는 데마는 후에 디모데서에 안타까운 내용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쓰여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눔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킵보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4:15-17)

So, you're Archippus tonight. I want to say to you, take heed to the ministry which you have received in the Lord, and fulfill it. That's something that all of us should be concerned with. What is it that God has called me to do, I must be fulfilling it. As Jesus said, "I must do that will of Him who sent me." So take heed to the ministry that God's called you to fulfill. See that you fulfill it.

> *The salutation by the hand of me Paul. Remember my bonds. Grace be with you. Amen* (4:18).

오늘 여러분은 아킵보입니다. 자신을 아킵보라고 생각하십시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십시요. 우리 각자에게는 정성을 기울여 이루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내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나를 보내신 자의 일을 내가 이루어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사 맡기신 직분을 삼가 이루시기 바랍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4:18)

And so, we come to the end of the Colossian epistle. And next week we take the first two chapters of Thessalonians. And we move on through, and it won't be long until we will have completed the Bible once more and will go back to Genesis. I don't think I'll ever make it again, but we'll go as far as the Lord allows us. I'm slowing down; you noticed that? The first time we went through it eighteen years ago, we went through the whole Bible in two years. You know, young and full of steam, all but…just slowing down.

이제 골로새서의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는 데살로니가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신약서신을 모두 마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성경을 다시 강해할 것입니다. 제 생전에 다시 한번 성경 강해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해 나갈 것입니다. 저의 성경강해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8 년전 첫 성경강해를 시도하였을 때, 그 때는 성경 전권 강해를 끝내는데 2 년이 걸렸습니다. 그 때는 제가 젊었고 정열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조금씩 속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Shall we pray. Father, we give thanks for the word of instruction, the word of truth. May it indeed become a lamp unto our feet and a light unto our path and may we walk in the light of your truth, Lord. Redeeming the time, in these evil days. Taking advantage, Lord, of every opportunity of serving You and of knowing You better. Lord, we thank You for Your word, and for the opportunity of gathering to study the word. And may the Spirit of God enrich our hearts in Your truth. In Jesus' name we pray. Amen.

God bless. Give you a beautiful week, keep you in the love of Jesus Christ, and cause you to abound in all things in Him. In Jesus' name.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훈과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진정 우리 발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당신의 진리의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악한 때에 시간을 아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당신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모두 이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함께 모여 당신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풍요하게 만드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